장편실화

인생결산

인 훈

금성청년출판사
주체101(2012)

차　　례

제 6 장
세기의 언덕에서

제도가 뒤바뀐 나라의 정치정세와 경제생활은 평온할리가 없었다.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계기로 크게 변하기 시작한 세계정치정세의 여파는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을 휩쓸었던것이다.

쏘련이 붕괴되여 새로운 로씨야가 탄생한 때로부터 5년이 되는 1996년이였다.

나는 그때 이르꾸쯔크, 노보씨비르스크, 옴스크 등 로씨야의 도시들을 돌아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자유와 문명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했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혹심한 인플레와 빈부격차를 초래했고 국민생활은 급격히 악화되여 정치경제는 커다란 혼란에 빠져들고있었다.

70여년동안 지속되여온 사회주의를 버리고 단숨에 자본주의를 지향한 놀라운 사변은 몇년 세월이 흐른 그때에도 나라에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오고있었다.

수수방관할수 없는 이 현실을 놓고 로씨야의 학자들은 모스크바국립종합대학에 모여 앞길을 모색하고있었다.

아. 엠. 끄왈료브원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간다면 오늘의 로씨야의 혼란된 정세가 극복되고 반드시 이전 쏘련과 같은 강력한 로씨야가 재생되게 될것이라는것을 나는 믿어의심치 않는다.

지난 시기에는 우리 학자들사이에 련계가 깊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주체사상이라는 공동의 리념이 있기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통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앉을수 있게 되였으며 흉금을

털어놓고 새 사회건설의 방도를 론의하게 되였다.》

현세계에서의 인간문제에 관한 국제학자연구련맹 위원장인 그는 세계명인사전에도 몇번 오른바있는 로씨야의 저명한 철학자였다. 일흔을 훨씬 넘어섰지만 조금도 굽어들지 않은 후리후리한 키는 왕성한 그의 정신력과 함께 사회주의사상리론의 전선에서 도고하게 자기를 지켜온 그의 학자적품위를 말해주는듯싶었다.

맑스주의철학의 거두로 알려져있는 그가 그러할진대 주체사상에 대한 로씨야의 정계, 학계, 사회계인사들의 호흡은 대단히 컸다.

그들은 솔직하게 말하였다.

조선에는 쏘련에서 맑스－레닌주의를 배우고 간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선생의 자세를 취하였는데 이제부터는 학생의 자세를 취하겠다고 허심탄회하게 말하는것이였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나자신도 주체사상의 과학성과 정당성,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더욱 새롭게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력사가 태동하는 동란의 시기에 독창적인 사상의 빛발은 더욱더 뚜렷이 빛을 뿜는다.

인간의 가치관을 두고 저마다 고심속에 빠졌던 현대의 숱한 철학가, 사상가들이 주체사상을 생명의 젖줄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세기와 더불어 도도히 굽이치는 자주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나의 가슴에는 주체사상의 폭이 참으로 넓고 아름차게 안겨왔다.

인간의 자주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사상은 사회적진보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의 요구와 일치한것이다.

그래서 만민이 주체사상을 따르는것이다.

그때 모스크바종합대학에서 나는 비슈와나스와 처음으로 통성하였다.

나는 그의 명함장을 보고 내심 의아쩍었다.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각국의 명함장들을 받아온 나로서는 세계적인 광고업자로, 저명한 사회활동가로 전대륙에 알려진 그의 명성에 비해 너무도 수수한 명함장을 받았던것이다. 그는 재산도 있고 적지 않은 액의 은행구좌도 가지고있는 사람이였다.

나는 스스럼없이 물었다.

《비슈와나스선생, 당신의 명성에 비해서는 명함장이 너무도 수수합니다.》

그는 아무런 가식도 없이 조용히 대답하였다.

《**김일성**주석에게서 배운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 한마디면 되였다. 그 한마디에 그의 정신, 그의 지향이 다 비껴있는듯 하였다.

그렇게 놓고보니 그는 차림새도 수수했고 식사도 항시 검소하게 하고있었다. 역시 명함장도 다를바 없는것이였다.

적지 않은 나라의 대통령들과 인물들을 만나본 그가, 항시 자존심과 우월감으로 가득차있던 그가 어찌하여 오직 우리 수령님앞에서만은 절대적으로 머리숙이게 되였는가?!

그 명성 세기와 더불어 누리에 찬연하건만 생존시 그리도 겸허하시고 그리도 자신을 낮추시며 인민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우리 수령님!

그이의 숭고한 그 인품에, 그이의 위대한 그 사상에 이 세상 그 누가 반하지 않을수 있으랴.

비슈와나스도 바로 그런 사람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그는 말하기를 세계적인업적을 쌓으신 **김일성**주석의 명함은 전세계가, 력사가 다 알고 높이 떠받들고있지만 그분의 생활은 차림새로부터 시작하여 모든것이 참으로 검소하였다는것이였다.

그래서 모든것을 우리 수령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있는 비슈와나스였다.

이때 나는 그와 초면이였지만 지면을 통하여 이미 알고있은터라 마치 구면인듯이 밤가는줄 모르고 많은 말을 나누었다.

인생의 시작부터 로씨야사람들과 손을 잡고 기업을 펴며 이 땅을 수없이 밟아온 비슈와나스였다. 그 나날에 벌려온 그의 기업은 상승의 일로를 걸어왔다고도 말할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그는 제도가 뒤바뀐 바로 그 땅에서 하많은 추억과 함께 인생의 철리를 새삼스럽게 깨닫고있다.

곡절많은 20세기의 마지막년대는 비슈와나스에게, 아니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령도자를 잘못 만나고 옳은 지도사상을 가지지 못하면 나라가, 인민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는 력사의 교훈을 깊이깊이 새겨주며 흘러가고있었다.

1. 사변, 붉은기가 내려지다

1991년 12월.

크레믈리궁전의 지붕우에 나붓기던 붉은기가 서서히 내려지고있었다.

크레믈리의 지맥과도 같은 온 세계 각국에 있는 쏘련대사관의 지붕우에 나붓기던 붉은기도 서서히 내려지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한동안 얼떠름하였다.

세계에 강대성을 자랑하며 74년동안 지속되여온 사회주의체제의 종말!

지구를 뒤흔드는 강력한 이 충격앞에서 만사람이 주춤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 전세계를 휩쓸었던 사회주의의 열풍에 떠받들려 창공에 높이 휘날리던 그 붉은기의 세찬 퍼덕임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얼마나 크나큰 힘을 불러일으켰던가.

그 붉은기의 세찬 퍼덕임은 온 세상 하늘에 소리를 내며 수십년을 휘날려왔다. 붉은기의 그 펄럭임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들으려고 모스크바로 흘러들던 사람들이였다.

비슈와나스도 그랬다. 첫 출국의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쏘련이 아니였던가.

사회주의쏘련의 그 74년에서 비슈와나스는 43년을 따라왔다. 보라, 《쏘베트 땅》은 43년의 년륜을 새기고있지 않는가.

1940년대말부터 90년대에 이른 오늘까지 단골손님으로 쏘련대사관에 드나들면서 그 잡지의 발간을 주관하여온 비슈와나스였다.

즉 43년간을, 바라캄바거리의 전주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년

륜을 그는 그 잡지에 새겨왔던것이다. 물론 그 나날은 사회주의와 운명을 갈이한 나날이였다.

《쏘베트 땅》은 넓고 풍요하였다. 그 《땅》은 판도리비비마을의 령지보다 더 넓고 풍요하였다. 한 지역,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대륙으로 부단히 자기의 령지를 확장해온 세계적인 《땅》이였다.

그 《땅》의 한복판에 비슈와나스는 서있었다.

3년전.

그날은 《쏘베트 땅》의 창간 40돐을 맞는 명절이였다. 쏘련대사관은 흥성이였다. 대잔치가 열리였던것이다. 각국의 외교사절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쏘련대사는 《쏘베트 땅》의 《주인》인 비슈와나스를 격찬하였다.

그 격찬은 무엇을 의미하였던가.

그것은 《쏘베트 땅》을 개간하였고 기름지게 걸구어온 그의 노력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앞으로 그 《땅》을 더 풍요하게 가꾸어주기를 바라는 부탁이였고 믿음이였다.

《쏘베트 땅》창간 40돐을 맞으며 제정한 기념메달과 증서가 맨 처음 그에게 수여되였다. 40이라는 수자가 한가운데에 뚜렷이 부각되여있는 큼직한 메달을 쏘련대사가 그의 앞가슴에 드리워주었다. 그가 받은 증서에는 《〈쏘베트 땅〉사업을 통하여 쏘베트—인디아의 친선, 평화에 특출한 기여를 한 비슈와나스선생에게 수여한다.》라는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그뿐이랴. 1만딸라의 상금…

각국의 외교사절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었다.

그 박수갈채는 또 무엇을 의미하였던가.

그것 역시 앞으로 《쏘베트 땅》과 같이 자기네의 땅들도 기름지게 하는데 적극 나서달라는 부탁이였고 믿음이였다.

불과 3년전이였다. 그날에 그들은 오늘을 내다보지 못하였단 말인가.

43년간을 기름지워온 그 《쏘베트 땅》이 졸지에 무너져내렸다.

수십년을 걸구어온 사회주의땅이 동유럽에서 련줄련줄 무너져내리는 이 사태를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는 미국과 쏘련을 각각 중심으로 하는 량극을 형성하였다. 그해에 유엔창립이 온 세상에 선포되였다. 쌘프랜씨스코에서 유엔헌장이 채택되였던것이다.

어찌보면 이것은 모순적인 일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쏘미 두 최대렬강을 각각 축으로 세계가 둘로 갈라진 그해에 《평화》의 간판을 내건 이런 국제기구가 태여났으니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의 세계는 일부 중립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두 극을 중심으로 뿔럭을 형성하고 자기 발전의 길을 모색해온 세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의 극이 부서졌다. 하나의 세계가 깨여져나간것이다.

이것은 랭전의 종식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미국이 이제는 《유일초대국》으로 떠오르게 되였는가.

세계는 법석하였다. 제나름의 주의주장들과 론평들…

다수가 사회주의는 종말을 고하였다는 목소리였다. 부르죠아어용학자들은 때를 만난듯이 사회주의는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떠들었고 수많은 사회주의사상가들과 리론가들도 가치관의 심각한 동요를 느끼였다. 그럴수밖에 없었다. 《물질문명》은 인간에게 여지없이 리념의 공백을 안겨주었고 자기의 기형성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으니 말이다.

누구나 력사속에 살고있다.

비슈와나스는 묵묵히 이 력사의 사변을 보고있었다.

하늘은 예나 다름없이 푸르렀고 거리의 사람들 또한 자기 생활의 길을 따라 예나 다름없이 흘러가는듯싶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요는 일어나고있었다. 정치가들과 외교관들, 사상가들과 분석가들은 참으로 동란의 시대를 맞이한것이였다.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 각 대사관들은 란리판이였다. 어찌 그렇지 않을수 있으랴. 모두가 쏘련의 지붕밑에 있었으니…

쏘련의 붉은기가 내려지기 전부터 흐물흐물해지던 동유럽의 사회주의지반은 쏘련의 조락과 함께 졸지에 무너져내리는것이였다.

쏘련이 우산을 쓰면 비가 오지 않아도 같이 우산을 쓴다고 하던 나라들이였으니 그것은 어쩔수 없는 귀결이였다. 그들의 현실은 남의 안경을 끼면 눈을 망친다는 격언을 천하에 증명한셈이였다.

외교관들은 급기야 소환되기도 하였고 새로운 사절들이 또 오기도 하였다.

그들은 언제 비슈와나스에게 작별인사도 할새가 없었다. 아니, 그런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본국의 정치체제가 뒤바뀌고 자기네 대통령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판에 그들의 특사와도 같았던 특명전권대사들이 언제 그 누구를 생각할 겨를이란 있을수 없는 일이였다.

종전에는 대사가 바뀔 때마다 넘겨 소개되던 비슈와나스의 존재를 그들은 이제 더는 필요로 하지 않았다.

비슈와나스는 사회주의나라 대사들의 손에 이끌려 많이도 다녔으며 그 나라들의 최고훈장도 적지 않게 받았었다. 이전 쏘련은 물론 뽈스까, 로므니아, 동부도이췰란드(당시), 마쟈르, 알바니아, 체스꼬슬로벤스꼬(당시), 벌가리아 등…

벌가리아에서는 또또르 쥡꼬브로부터 직접 금메달과 특별증명서를 받은바도 있었다. 그 특별증명서에는 일생동안 사증없이 벌가리아에 드나들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여있었다.

그 많은 메달들과 증서들이 이제는 그 존재를 상실한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의 낡은 표적에 불과한것으로 되고만것이였다.

붉은기밑에 번성하던 《쏘베트 땅》도, 그의 관계자들도 붉은기와 함께 자취없이 사라지는 판이였다.

이것은 사실 《트리뷴》의 파산때보다도 더 혹독한 운명의 희롱이였다. 《트리뷴》은 일시 곡절을 겪고 다시 솟아났지만 사회주의의 운명에 대해선 그 누가 다시 예측할수 있으랴.

답답한 가슴을 풀어젖히려는듯 비슈와나스는 사무실의 창가림을 올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였다.

길 건너 맞은켠에 있는 아싸프 알리의 전신동상이 새삼스럽게 안겨온다. 그는 인디아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영제국주의자들과 싸운 애국투사였다. 그의 위훈을 전하기 위해 1960년대 중엽에 정

부에서는 그의 동상을 그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거리에 세웠던것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생을 바친 사람은 그 인민의 기억속에 남아있다.

쏘련에도 사회주의조국을 지켜 피흘리며 싸운 애국투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오늘을 보자고 그렇게 피흘리며 목숨을 바쳤던가.

착잡한 생각에 잠겨 비슈와나스는 오래동안 사무실에 혼자 있었다.

세계정치정세가 이렇게도 뒤바뀌게 되다니?

비슈와나스는 뒤늦게 《인터라즈》청사를 나섰다.

그레이터캘라슈거리의 자기 집에 도착한 그는 운전사를 보내고 정문앞에 한참동안 그냥 서있었다.

그는 밤거리를 천천히 걷기 시작하였다. 바람을 좀 쏘이고싶었다. 뉴델리에서의 12월은 장마철이 지나가고 걷기에 좋은 날씨였다.

하늘은 쾌청하다. 사람들의 마음도, 나라들의 형편도 저 하늘처럼 쾌청하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걸음은 저도모르게 조선대사관앞에 와 멎었다. 조선대사관은 그의 집에서 불과 1키로메터 남짓한 거리에 위치하고있었던것이다.

조선대사관의 지붕우에서 람홍색공화국기는 여전히 펄럭이고있었다. 여느때보다 더 세차게 펄럭이는듯싶었다.

조선은 쏘련의 지붕밑에 있지 않았다. 모든것을 자체로 뚫고나가는 나라였다. 자력갱생의 나라 조선의 그 정신은 《주체》였다.

이날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나간것이 얼마나 정당하며 주체사상이 얼마나 위대한 사상인가 하는것이 온 세상에 말없이 증명된 날이기도 하였다.

비슈와나스는 10여년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자기를 접견하여주신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명철한 분석이고 판단이였던가 하는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것이였다.

그때에 **김일성**주석께서는 사회주의적요소가 점차 없어지고있는 나라들에 대하여 퇴조기라고 정확히 찍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그 말씀은 하늘의 계시였고 위인의 귀띔이였다.

그이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을 내다보고계시였던것이다.
정말로 그이는 세상천하를 굽어보시는 인류의 하늘이시였다.
이밤 비슈와나스는 그이의 제자로 태여나 하늘의 계시를 받으며 이 세상을 걸어가는 자신이 돋보이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비슈와나스는 펄럭이는 주체의 나라의 그 기발을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왜서인지 람홍색공화국기속에 새겨져있는 그 오각별은 이 시각 더 크게, 더 뚜렷하게 자기의 모습을 세상에 떨치며 하늘을 꽉 채우는듯싶었다.

2. 폭풍속을 나는 새는 더 아름답다

폭풍이 불어쳤다.
1980년대말부터 한두 나라에서 일기 시작한 그 바람은 새 년대에로 이어지면서 더욱 세차게 불며 동유럽의 사회주의땅을 휩쓸었다.
서구《물질문명》의 집요한 그 바람에 못견디여 끝내 그 나라들은 허물어졌다.
엄연한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물질문명》의 발전이 자기의 기형성을 인류의 면전에서 시위하였다고 해야 할것이다.
《물질문명》의 악발전은 폭력주의의 대두를 동반하였다.
이때 한쪽에서는 크지도 않은 나라에 국제련합군의 미싸일소나기가 쏟아졌던것이다.
페르샤만전쟁은 인류를 놀래웠다.
인류가 쌓아온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 전쟁에서 외곡되게 사용되였고 이라크는 《폭력만능》론리를 증명하는 제물로 바쳐졌다. 《폭력만능》이 인류의 외곡된 가치관으로 군림하였다.
순조롭게 흘러가는듯 하던 생활이 일시에 뒤죽박죽되여 세상은 소란스러웠다.

자유롭게 푸른 하늘을 날던 새들이 갑자기 드리운 어둠에 갈길을 잃고 땅우에 곤두박질쳤다.

제 땅에 서있는 기둥이래도 그것이 남의것이라면 마음편히 의지할수 없고 거기에 얹혀진 처마밑에 시름놓고 들어설수 없음을 사람들은 피눈물이 나도록 체험하였다.

리념투쟁의 년대들로 이어진 파란많은 20세기의 저물녘에 력사가 오랜 혁명의 성과들이 하루아침 물먹은 흙담이 되였으니 그 지붕을 함께 썼던 기둥들이 순간에 맥없이 넘어지고있었다.

아, 세상이여! 너는 이렇게도 뒤바뀌일수 있단 말인가.

그 폭풍에 모든 새들이 죽지를 잘리우고 떨어져도 더 세차게 퍼덕이며 창공에로 치달아오르는 억센 나래가 있었으니 그 새는 비슈와나스의 마음속에 날고나는 자유의 새였다.

그 새는 세상을 휩쓰는 그 폭풍에 항거하듯 더 세차게 퍼덕이며 그냥 날아오르기만 하였다. 그 새는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눌리우지 않았다. 아무리 구름이 층층 내리덮여도 그 새의 머리우엔 가없이 열려져있었다. 그 나래 품어줄 푸른 하늘이, 그 나래 지켜줄 영원한 태양이.

일찌기 판도리비비마을의 령지를 떠난 아름다운 그 새는 이미 자기의 하늘을 가지고있었으며 지키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생각하였다.

내가 주체사상을 몰랐더라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를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이런 때 나는 어떻게 되였을것인가.

갈 길을 잃고 방황하였을것이다. 한생 선전해왔고 그들과의 기업거래도 깊었던 사회주의쏘련을 잃고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을 잃고 나역시 허무해졌을것이다.

허나 그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우러르는 하늘이 있었고 드팀없는 신념의 기둥이 있었다.

그 하늘은 주체의 태양이 빛나는 하늘이였으며 그 신념의 기둥은 주체사상이였다.

주체, 이는 자기의 손으로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게 하는 슬기였으며 힘이였다.

마음속에 하늘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풍파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더 억세게 다스려가는것이다.

비슈와나스의 심장은 끓고있었다. 그 심장은 줄줄이 시를 뽑고있었다.

—인간이여, 너는 세계의 주인이다!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주체는 대답하였다
찾지 못한 철학사의 물음에
달아오른 인간리념의 절정에

갈증에 타던 가슴들에
마를줄 모르는 샘물이 되여
갈 길 잃은 수난자들의 앞길에
꺼질줄 모르는 등대가 되여
만민의 심장을 틀어잡은 주체!

위대하고 거룩한 주체는
진리만을 진리만을 선언한다
인간이여 너는
자기 운명의 주인!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사회적존재!
…

인자한 《하느님》의 감언에
넋을 내맡기고 소외당하여온 인간이여
자본의 무자비한 《법칙》에
두손들고 소외당하여온 인간이여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너는 세계의 주인이다!

너는 만물의 조종자다!
너는 곧 이 세상이다!

질곡의 수천년력사에
《하느님》과 권력
물질의 노예였던 인간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세운 주체!

오, 만민이 우러르는
주체의 그 이름은
김일성!
김정일!
…

동란의 시기에 더욱 세차게 뿜어져나오는 그의 시줄기들은 그대로 그의 심장의 목소리였다.

그는 썼다. 주체의 그 이름은 수억만 인류의 기원우에 새겨진 참된 삶의 리념이라고, 인간사랑의 절정우에 솟은 삶의 영원한 기치라고.

그의 사색의 바다는 끝없이 출렁이며 잠들줄을 몰랐다. 그는 그냥 써내려갔다.

인간의 근본을 밝히듯
인류의 미래를 알리듯
이 세상 어디서나
자랑스럽게 울리는 그 이름

세기를 이어 물려온 유산처럼
인류가 받아안은 이름이라면
온 세상이 어찌
이처럼 환희에 넘칠수 있으랴

주체 — **김일성!**
주체 — **김정일!**

그 이름은
가슴속 가득히 차넘치는
인간의 긍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함축되여
심장처럼 지니고있는 이름이거니
…

진정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거대한 성서!
속죄의 참회없이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임을
따르는 만민에게 깨우쳐준
참삶의 유일한 가르침!
…

세계라는 거대한 왕궁의 옥좌에
당당히 인간을 올려앉혀준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리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
더 높이 더 높이 울려간다

—인간이여, 너는 세계의 주인이다!

그가 한생의 걸음걸음으로 체험하며 심혈을 기울여 구상해오는 서사시의 제2장은 이렇게 태여났다. 복잡다단한 년대에 더욱 폭넓게 확증되는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은 마를줄 모르는 그의 시의 샘줄기였다. 그 샘줄기는 인류의 영원한 봄을 노래하며 이 땅에 흐르고흘렀다.

제나름의 생각을 일기장에 적어가며 한 도시의 골목골목을 뛰여다니던 어제날의 소년은 시대의 거창한 숨결을 호흡하며 세계의 벗들과 어깨겯고 자주의 한길로 행진해갔다.

바람이 불면 돛배는 더 힘을 받아 바람을 맞받아나간다.

력사의 풍파를 맞받아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마음속에 날고있는 아름다운 두루미, 자유의 그 새를 아득한 창공에로 더 높이 띄워올렸다.

우선 그는 다가오는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국제토론회를 뉴델리에서 최대의 규모로 조직하려고 마음먹었다. 력사의 시점에서 볼 때 그것은 자주를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며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그는 간주하였다.

일찌기 없었던 력사의 이 풍파속에서 더욱 빛을 뿌리는 주체사상의 위력을, 주체의 사회주의의 위력을 세계에 더 크게 시위해야 했다. 그리하여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진보적인민이 신심을 잃지 않고 분발하여 이 폭풍속을 뚫고나오게 해야 했다.

국제연구소 《참모장》인 오가미 겡이찌는 토론회의 주최국인 인디아에 매일이다싶이 전화를 걸어왔다. 비슈와나스는 그와 토론을 거듭하면서 빈틈없는 조직사업을 해나갔다.

물결이 거칠 때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손맞추어 일제히 노를 저어가야 함을 그들은 잘 알고있었다.

한배를 탄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았다.

무케르지는 이미 앓고있던 신경통이 심하게 도져 매우 불편한 몸이였으나 토론회보고를 말아가지고 그 집필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갔다.

비슈와나스는 고빈드를 비롯한 핵심신봉자들과 힘을 합쳐 일을 내밀어갔다.

이노우에 슈하찌리사장도 부지런히 각국의 연구조직들과 신봉자들에게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며 토론회에서 할 연설내용들을 일일이 검토하고 방조해나갔다.

세계정치정세가 급변해가는 20세기의 마지막년대에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자기들에게 지워진 력사적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있었다.

참으로 미더운 세계의 친구들이였다. 이미 주체사상에 운명을 걸

고 직업적으로 나선 그들이였다.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국제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치르자면 주최국인 인디아에서의 조직사업에 성과여부가 크게 달려있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정부의 각료들과 학자들을 만나고 또 만나며 토론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만전을 다하였다.

이럴즈음 파키스탄의 북동부 인디아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 라호르에서 알따브 후쎄인도 국제토론회참가준비로 밤을 밝히고있었다.

그는 이번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여 자기의 한생을 총화하려고 마음을 다잡고있었다.

《…주체사상은 나와 같이 랭랭한 가슴에도 약동하는 삶의 숨결을 부어주는 인간사랑의 가장 완성된 성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상입니다.》

벌써 며칠밤째 그는 한자한자 심혈을 기울여가며 토론문을 쓰고있다. 그 토론문의 글줄마다에는 지나온 자기 생활의 반성과 회오, 흘러온 력사의 교훈과 진리, 인류가 내다보는 밝은 미래가 비껴있었다.

알따브 후쎄인은 확실히 자기의 심장은 랭랭하였다고 생각되면서 지난날들의 모든 일들이 새삼스럽게 돌이켜지는것이였다.

그가 주체사상의 감화력에 대하여 커다란 충격을 받은것은 10년전 카라치에서였다.

모진 시련과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주체사상을 따르는 한길에 생명도, 가정도 다 바쳐가는 동료들과 각계층사람들의 완강한 모습에서 그는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력력히 감촉하였던것이다.

카라치에서 돌아온 후 그의 생활과 사고방식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아브둘 말라크와는 평양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였는데 정작 헤여지고 자기자신을 돌이켜보니 아무 한 일도 없이 무슨 체면에 동료들과 나란히 설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비슈와나스는 뉴델리에서 큰 국제토론회를 치르고, 아브둘 말라크는 카라치에서 전국토론회를 치르고 평양으로 가는것이였다. 그들과 발걸음을 나란히 하기에는 너무도 한 일이 없는 자기의 마음이 떳떳

치 못하였다. 하지만 늦게나마 그들을 따라가야 했다. 그는 시대앞에, 력사앞에 자기 할바를 해놓고 동료들과 한 대오에 나란히 서고싶었다. 그래서 그는 평양행을 뒤로 미루고 라호르에서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고 소조를 결성하는 일에 나섰던것이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린것 같은 허전한감에 자주 싸이던 그의 가슴에 새로운 힘이 부어지기 시작하였다.

인구수로 보아 파키스탄에서 카라치 다음가는 큰 도시이며 공업중심지인 라호르에서의 주체사상연구보급은 실로 나라의 자주위업실현에서 큰 의의가 있는것이였다.

이 도시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있는 파키스탄최고재판소 소속 변호사인 모하메드 이슬람나기가 있었다. 알따브 후쎄인은 그와 련계를 취하고 공동보조를 맞추어나갔다.

오늘 라호르에는 알따브 후쎄인이 조종하는 각계층의 사람들이 망라된 주체사상연구쎈터가 활발히 움직이고있다.

이 모든것을 돌이켜보며 한자한자 토론문을 쓰고있는 알따브 후쎄인이였다.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사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랭랭한 심장에도 가장 뜨거운 불을 지펴주기마련인것이다.

1992년 2월 8일,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뉴델리에서는 또다시 세계의 자주와 평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성대히 막을 올렸다.

근 반세기에 걸친 랭전의 종식을 두고 제국주의자들이 반사회주의공세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던 때에 열린 국제적회합은 그 의의가 자못 큰것이였다.

국제반동세력은 《사회주의의 실패》라는 대합창을 부르고있었으며 부르죠아 자유화를 고취하는자들은 《사회주의의 실패》를 20세기의 대 《유산》이라고 떠벌이고있었다.

한편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사회주의리념자체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추악한 배신행위를 변호하고있었다.

세계는 어느 길로 갈것인가.

사회주의하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있었으며 좌익적인 정당들도 동요하고있던 때였다.

하지만 비슈와나스는 그따위 《사회주의붕괴》설을 믿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가 근 20년세월 조선의 사회주의를 직접 목격해오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심을 깊이 간직해왔기때문이였다.

보라, 주체사상을 지도적리념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늘 자기의 모습을 만방에 더욱 뚜렷이 떨치고있는것이 아닌가.

토론회는 량일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디아에서 정부의 많은 각료들과 정당의 요직들이 참가하였으며 각국의 대표단단장들이 모두 권위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회의의 품위가 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조성된 국제정치정세로 보아 토론회에는 사회적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여야 한다고 보고 거기에 각별한 힘을 넣었던것이다.

티. 비. 무케르지가 토론회의 보고를 하였다. 그는 앓고있는 몸이였으나 최대의 마력을 내여 이번 토론회의 보고를 맡아안았던것이다.

이번 연단에서는 세계적으로 맑스주의정통파로 알려져있던 많은 학자들이 주체사상의 과학성과 정당성, 생활력에 대해 저마다 열변을 토한것으로 하여 실천적의의가 자못 큰것이였다. 그것은 시대의 목소리였다.

파키스탄의 대표로 연단에 나선 라호르주체사상연구쎈터 조종자 알따브 후쎄인의 발언은 진실한 심장의 고백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나는 세계를 물질, 경제적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는것은 필연적인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법도 그것을 자로 하여 다스려온 사람입니다. 나의 심장은 사람이면서도 사람을 첫자리에 놓는 위대한 학설에 대해 선뜻 공감하지 못한 랭랭한 돌덩이였습니다. …

주체사상은 나와 같이 랭랭한 가슴에도 약동하는 삶의 숨결을 부어주는 인간사랑의 가장 완성된 성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상입

니다. …
이 세상을 가장 정확히 볼수 있는 유일한 눈은 주체의 세계관입니다. 불변의 이 진리를 이제는 나 하나만이 아닌 력사의 객관적인 증명을 요하는 온 세상사람들이 자기들의 체험으로 받아들이게 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것입니다. …
주체사상을 알면 누구든 인간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그의 토론은 청중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토론회에서는 세계자주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동유럽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직후에 진행된 뉴델리토론회는 탄생 50돐을 맞으시는 그이께 드리는 전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의 가장 큰 선물이였다.
처음으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여 심중의 고백을 터친 알따브 후쎄인은 왜서인지 그때부터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감을 느끼였다.
세 친구는 마주앉았다. 알따브 후쎄인은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나에게도 무슨 과업을 하나 주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와 같이 조용하였으나 그의 심장은 일찌기 느껴보지 못한 새삶의 환희와 감격으로 끓고있었다.
동료들은 웃으며 말하였다.
《헤여질수 없는 우리들이지.》
《그럼! 헤여질수 없는 우리들이지.》
세 친구는 서로서로 손을 마주잡았다. 그들은 완전한 의미에서 지금 다시 만났다고 해야 할것이다.
순수 지난날의 추억만을 안고있는 개인적우정이라면 발전하는 시대와 더불어 어이 계속 깊어질수 있으랴.
추억은 오늘을 위하여 있는것이고 오늘은 래일을 위하여 있는것이다. 추억에 머무르는 친구가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손잡고 새 세계에로 함께 가는 그런 친구가 진짜 영원한 친구인것이다.
알따브 후쎄인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이끌어주며 진심을 받아준 동료들이 고마왔다. 끝까지 진심을 알아준다

는것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고 가볍게 해주는것인가.

알따브에 대한 동료들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다.

비슈와나스는 동창으로서만이 아니라 정확한 사람으로서 알따브 후쎄인을 좋아했고 잊지 않고있었다. 자기처럼 감성을 앞세우지 않고 모든것을 침착하게 판별하는 그의 리성은 따라배울만한것이라고 비슈와나스는 대학시절부터 생각해왔다. 그래서인지 그 어떤 일에도 선뜻 끼여들지 않았고 때로는 랭랭하게 지켜보고만 있던 알따브였다.

그러던 그가 주체사상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주객관적으로 다 검증하고 드디여 심장으로 받아들였으니 어찌 그의 가슴이 환희에 높뛰지 않을수 있으랴.

그런 사람의 심장이 일단 높뛰면 다른 사람에 비해 배가로 불타오르는것이다.

그 인간이 감성형이든, 리성형이든, 또 그 민족이 감성형이든 리성형이든 옳은 사상은 모두의 가슴을 흔들며 그들을 새 사회건설의 참된 길로 이끌어가는것이였다.

역시 옳은 사상은 세계를 휩쓸며 교파, 학파, 당파의 한계를 초월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더욱 굳게 단합시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였다.

서로 다른 교리로 하여 갈라졌던 친구도 민족도 주체의 이길에서 다시 만나는것이였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친구의 정을 더 두터이 해주고 인간관계를 단결의 힘으로 한껏 승화시키며 만민을 끌어당기는 위대한 사상이였다.

인간에게는 존엄을, 민족에게는 긍지를, 인민에게는 미래를 안겨주는 사상이 바로 주체사상이였다.

이렇게 곡절많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 많은 동료들, 더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굳게 뭉쳐 주체의 길에 발벗고나섰다. 생활이 그들을 그길로 이끌었던것이다.

토론회와 때를 같이하여 비슈와나스는 1988년부터 준비해온 《**김일성**백과전서》의 발행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탄생 80돐을 기념하여 내놓은 책은 세상에 나가자

마자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지고 그 나라 지도자들이였던 사람들의 운명을 담보하기 어렵던 시대였다.

이런 때 세계의 지성인들이 주체의 사회주의나라의 위대한 수령에 대한 전서를 내놓았으니 그 반향은 대단한것이였다.

전2권으로 된 전서는 각 대륙의 지역연구소들과 연구조직들 그리고 세계의 이름있는 도서관들과 대학들에 배포되여 오늘도 읽히우고있다.

언제인가 나는 그 책을 훌륭하게 완성한데 대해 비슈와나스에게 말한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칭찬이나 받자고 그 책을 편찬하지 않았소. 나는 주체사상신봉자로서 응당 해야 할 임무를 했을뿐이요. 그 책은 내가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호상 협력을 잘하여 완성한것이요.》

《그래도 선생이 발기하고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발기인이 있고 발행인이 있어야 책이 나오는것만은 사실이요. 하지만 그 책은 나 한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김일성**주석을 끝없이 흠모하는 세계의 마음들이 힘을 합쳐 력사에 내놓은것이요.》

참으로 그러했다. 《**김일성**백과전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가 낳은 귀결인것이다.

1989년부터 뽈스까에서 시작된 사회주의의 좌절이 90년대 초엽에 이르러 쏘련을 위시한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정치경제적혼란이 심화되고있는 때에 아무런 변화없이 사회주의의 한길로 나라를 이끄시는 조선의 위대한 수령을 어찌 만민이 찬탄하지 않을수 있으랴.

보석의 빛발은 어두운 밤에 더 반짝이고 위인의 모습은 순탄하지 않는 세상에서 더욱 빛나는것이다.

김일성동지!

그이는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주체의 태양이시였다.

비슈와나스는 그이를 위해, 그이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해 그 무엇을 또 해야 했다. 력사의 이 동란속에서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는 스스로 자기를 자각하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품고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국제상을 제정하고싶은 생각이였다.

인디아에는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에게만 수여하는 네루상이 있었다.

만약에 **김일성**주석의 존함을 모신 국제상을 제정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국제적인 표창관례를 건전화하고 사람들에게 위인에 대한 흠모심을 뜨겁게 안겨주는 일대 경사로 될것이였다. 왜냐하면 그이는 인류가 우러르는 성인이시기때문이였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힌두교의 나라에서 태여나 일찌기 부모들과 외가집에서 교육받은 힌두교의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며 가지가지의 전설들과 영웅담이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가슴에 새겨진 남다른 성장과정과도 관련되여있는지도 모른다.

그의 어린 마음에 갈마들었던 성인에 대한 흠모심은 세계관이 형성되면서 종교의 성서에서가 아니라 현시대의 초점을 모으시는 현실의 위인, **김일성**동지에 대한 흠모심으로 승화되였던것이다.

그는 곧 이 사업에 착수하리라 결심하였다.

조용히 가슴속에 무르익혀오던 이 과제는 더는 미룰수 없는 성숙된 력사적과제로 그의 심금을 울리기 시작하였던것이다. 그는 이것을 시대의 요구로 받아들이였다.

그의 불같은 성미는 이번에도 나타났다.

그는 자기의 이 발기를 국제연구소와 각 지역에 있는 리사들 그리고 인디아의 각료들과 동료들에게 하루사이에 다 통보하였다.

《**김일성**백과전서》를 세상에 내놓은데 뒤이어 국제**김일성**상의 제정을 발기해나선 비슈와나스의 위인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 지칠줄 모르는 그 정열에 동료들은 감복하였다.

세계의 저명한 인사들로 곧 국제**김일성**상을 내오기 위한 발기인집단이 무어졌으며 그 상의 제정을 위한 발기인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비슈와나스는 **김일성**재단설립과 국제**김일성**상을 제정, 수여할데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회의참가자들은 진지한 토의를 하였다.

국제**김일성**상은 단순한 과학기술발전이나 세계평화위업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수여되는 다른 국제상들과는 달리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특출한 기여를 한 진보적인사들에게 수여하자는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의사였다. 그리고 상금을 위주로 할것이 아니라 정치사상적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영원히 뜻깊게 기념할수 있는 기념품을 배합하는 방향에서 제정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해 3월 중순 비슈와나스는 조선으로 왔다.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김일성**백과전서》를 선물로 드리고 또한 자기가 계획한 모든것을 그이께 삼가 보고드리고 가르치심을 받고싶었다.

례년에 없이 비슈와나스의 가슴은 기쁨으로 설레였다.

얼마나 환희로운 일인가. 이 세상에 《**김일성**백과전서》가 태여났고 이제 또 국제**김일성**상이 태여난다는것이!

이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요구를 반영한것이였다.

그러나 한편 비슈와나스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한없이 겸허한 품성을 지니신 **김일성**주석께서 자기들의 념원을 만류하실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앞섰기때문이였다.

3월 19일,

김일성동지께서는 먼 곳에서 온 전사를 또다시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미 구면인 비슈와나스를 홀에까지 나오시여 마중하시며 뜨겁게 포옹해주시였다.

너무도 반가우시여 기념사진부터 찍어주시고 담화실로 이끄시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스승!

이처럼 위대한 성인에게 그 누가 자신의 모든것을 터놓지 않을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지 않을수 있으랴.

담화실에서 자리를 권하시는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비슈와나스는 진정의 마음을 터놓았다.

《저는 먼저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주석각하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의 신봉자로서 주석각하를 어버이로

높이 존경합니다. …》
이렇게 허두를 뗀 비슈와나스는 어려움도 잊고 15년전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왔을 때 깊은 인상을 받고 마음속깊이 스승으로 모시고있는데 대해, 오늘 인디아가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하나의 큰 쎈터로 전변된데 대해,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가 생존하고있을뿐아니라 꽃과 같이 계속 만발할것이라는데 대해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주체사상은 인간생활에 커다란 복리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 복리를 받아안은 사람들속에 저도 속해있습니다. …
주석각하께서는 10여년전에 저에게 사회주의의 전망과 미래에 대하여 몇가지 실례를 들어 말씀하시였습니다. …
저는 주석각하께서 그때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천만번 지당하였다는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주석각하께서는 저에게 쏘련정세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였습니다.
주석각하께서 그때 쏘련정세와 관련하여 저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에 와서 현실로 되였습니다. 쏘련은 망하였습니다. 쏘련에서는 사회주의가 망하였으며 민족도 분렬되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거듭 앉으라고 하시며 인자하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건강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와 당신의 의지는 같습니다. …
나와 당신은 벗으로, 형제로, 동지로 되였습니다. 우리들사이의 관계는 이제부터 완전무결한 동지적관계입니다.》
위대한 스승의 더없는 믿음을 받아안은 비슈와나스는 끓어오르는 감격으로 가슴을 들먹이였다.
천하를 굽어보시는듯한 빛나는 눈길, 강산을 울리는듯한 우렁우렁한 음성…
위인의 그 영상을 우러러 비슈와나스는 삼가 마음을 가다듬었다.
《당신은 그때 내가 한 말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한 말이 이제는 사실로 되였습니다. …
적들은… 벌써 한 40년전에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엎어놓기 위

한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자주적으로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자주적으로 나간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은 지금에 와서 더욱 증명되였습니다.》

계속하시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정치정세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으며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된 원인에 대하여 두가지로 분석해주시였다.

그 원인은 첫째로, 그 나라들이 자주성이 없었기때문이며 둘째로, 적들의 암해책동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은 모든 나라가 자주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 순간 비슈와나스는 마음속으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그이께서 하신 말씀을 수록한 책을 꼭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고있었다.

김일성동지의 말씀은 그의 가슴에 깊이깊이 새겨졌다.

그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터놓았다.

《저는 오늘 주석각하께서 하신 말씀을 주체사상신봉자로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저는 주석각하의 생애에 대하여, 주석각하께서 지금까지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투쟁을 벌려오시여 조선을 오늘과 같은 자주적인 나라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깊이 연구해온 학생이라고 말씀올릴수 있습니다.》

비슈와나스는 위대한 수령님께 《**김일성**백과전서》를 삼가 올리였다.

그는 이 기회에 주석각하의 탄생 80돐에 즈음하여 자기의 소박한 선물인 《**김일성**백과전서》를 올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책이 담고있는 내용과 이 책의 집필에 세계의 수많은 저명한 학자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참가한데 대해 말씀드렸다.

한없이 겸허하신 그이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란다고 하시며 비슈와나스를 오찬회장으로 이끄시였다.

오찬회장에 들어서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비슈와나스에게 자리

를 권하시고 말씀하시였다.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듭시다.》

비슈와나스는 황송하였다. 더없이 감개무량한 그는 다시 일어서며 말씀드리였다.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저는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주석각하께서 건강하실것을 축원하여 이 잔을 들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였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는 계속되였다.

여느때없이 비슈와나스는 점점 마음이 긴장되여옴을 어쩔수 없었다. 정작 보고드려야 할 시각이 오자 그의 마음은 망설이게 되는것이였다. 하지만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보고는 드려야 했다.

그는 용단을 내려 말씀드렸다.

《주석각하! 저희들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각하의 존함을 모신 국제상을 제정하려 합니다.》

아니나다를가 그의 말을 들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를 굳이 만류하시는것이였다. 우려하였던 그대로였다.

비슈와나스는 자기가 왜 국제**김일성**상을 내오려 하고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렸다.

《주석각하! 제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것은 세계인민들이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주석각하에 대하여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제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것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주석각하의 조언과 령도를 받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 현실태와 관련되는것입니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겸허한 안색을 지으시더니 이윽하여 인민의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화제에로 말씀을 돌리시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감동되였다. 언제나 자신을 낮추시고 인민의 지도자를 내세우시는 위대한분이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그 풍모앞에 머리를 숙이며 비슈와나스는 마음속

으로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내 반드시 세계 진보적인류의 념원을 담아 이 상을 제정하리라.

이것은 력사가 준 의무였고 시대가 준 사명이였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상은 영원히 제일 높은 국제상으로 남아 있게 될것이다.

비슈와나스는 만나뵈올수록 한없이 인자하신 그이의 모습에서 숭고한 인간애와 은정깊은 사랑을 더욱 뜨겁게 받아안았다.

그는 **김일성**동지의 안광에서 여유작작하고 자신만만하신 모습을 직감했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할 때 정치가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생각했다.

그이의 안광에 흘러넘치는 한없이 인자한 사랑의 빛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부문이 신뢰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륭성번영의 한길로 전진하는데서 느끼시는 만족이 낳은것이 아닐가?!

비슈와나스는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인디아에서 중요한 행사가 50회 진행된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헤여지시면서 앞으로 가족을 데리고 우리 나라에 와서 휴식하라고 하시며 그를 뜨겁게 포옹해주시였다.

비슈와나스는 **김일성**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여 주체사상신봉자들을 계속 축복하여주실것을 간절히 바랐다.

비슈와나스는 평양에서 곧장 도꾜로 날아갔다. **김일성**동지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일본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4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도꾜토론회에는 세계의 모든 대륙과 국제 및 지역기구에서 온 대표단과 대표들, 저명한 사회활동가들과 과학, 교육, 언론계인사들 600여명이 참가하였다.

격변하는 세계정치정세의 흐름속에서 진행된 1992년의 이 도꾜토론회의의 준비에 오가미 겡이찌, 이노우에 슈하찌를 비롯한 일본의 인사들이 큰 역할을 놀았다.

이 토론회에 참가한 비슈와나스는 세계의 모든 주체사상신봉자들로부터 국제**김일성**상제정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

그후 국제**김일성**상제정을 위한 준비사업은 더 빨리 다그쳐졌다.

그 다음해 3월 중순 비슈와나스는 또다시 평양방문의 길에 올랐다. 탄생 81돐을 맞으시는 **김일성**동지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비슈와나스는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총비서 쑤르지트를 만났다. 그들은 가까운 사이였다.

쑤르지트는 비슈와나스에게 조선에 가면 자기와 함께 한 초대소에 들자고 하면서 한 대표단성원으로 같이 있는것이 어떤가고 하는것이였다.

《아니.》

비슈와나스는 첫마디에 반대하였다. 그것은 그의 말대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마치도 자기가 무소속이 아니고 공산당에 속해있는 사람으로 잘못 알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는 그 어떤 당파에도 속해있지 않았다. 그는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자기가 인정되는것만을 따르고있었다.

그가 주체사상을 따르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흠모하는것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의 그의 신념이였다.

당시 조선의 정세는 위기일발의 전쟁전야였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계층들을 사촉하여 구실을 붙여 《특별사찰》을 강요해나섰으며 1월부터는 이미 중지했던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재개를 공포하였고 여기에 20여만의 침략무력과 방대한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고 지어 핵무기사용시의 지휘체계까지 발동하면서 군사적위협을 가해나섰다.

만전쟁으로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미제는 공화국에 대해 군사행동으로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해온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핵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면대결로 나서고있었다.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3월 8일 세상에 공포되고 뒤이어 며칠후에는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 핵무기전파방

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 성명이 발표되자 세계는 죽가마끓듯 하고있었다.

자주국가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한 조선의 이 조치는 세계의 응당한 지지를 받을만한 자위적조치였다.

이것은 누구도 예측 못했고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그야말로 청천벽력의 《핵》탄공세였다.

세계는 《북조선의 핵개발을 막으려고 한 미국의 전략이 북조선의 탈퇴선언으로 실패하였다.》며 미국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방법도 가지고있지 못한데 대하여 야유하였다.

반면에 세계의 일부 통신들은 조선이 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되였는가 하는 그 리유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조선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지 않기 위하여 탈퇴하였다고만 냅다 보도하고있었다.

조선의 정세는 초긴장상태로 팽팽해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이런 때일수록 더 조선에 가야 한다는 드놀지 않는 신념을 안고 변함없이 조선을 찾아온것이였다.

미제의 무분별한 군사적침략의 《구실》로도 될수 있는 공화국의 탈퇴선언이 어떤 배심에서부터 나온것이며 또 공화국의 원칙적립장과 강경한 자세가 어디에 기초한것인가를 잘 알고있는 비슈와나스였다. 그의 가슴속에는 조선은 반드시 이긴다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잡고있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미국이 아직도 전쟁연습에 매달리고있는 때인 3월 24일 준전시상태를 주동적으로 해제한것은 세계에 다시한번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비슈와나스의 마음속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는 또하나의 계기로 되였다.

준전시상태의 조기해제로 미국은 또한번 패자의 몰골을 세상에 드러내보였다.

가장 긴장한 정세를 안고있는 조선에 와서 이 모든것을 체험하는 비슈와나스의 심장은 흥분으로 끓고있었다.

4월 3일,

김일성동지께서는 금수산의사당에서 또다시 비슈와나스를 접

견해주시였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를 포옹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당신과 같은 오랜 벗과 만나는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심정그대로를 말씀드렸다.

《저는 자기 집에 오는것과 같은 감정으로 조선에 오군 합니다. 저는 특히 주석각하를 만나뵈올 때마다 친어버이를 만나는 심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저는 탄생 81돐을 맞으시는 주석각하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올립니다.》

비슈와나스는 **김일성**주석께서 마치 신과 같이 출현하시여 노예의 쇠사슬에 묶이여 고통을 겪고있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주고계신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당에 가서 성경책을 읽으며 신을 믿을 때 저는 주석각하의 로작을 학습하면서 많은 정신적량식을 얻고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과연 사람이 어떻게 자주적으로 살며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됩니다. …

수천수만년동안의 인류력사는 아직 위대한 수령이신 주석각하와 같으신 위인을 모셔보지 못하였습니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마음속진정을 그대로 터놓으면서 주체사상연구보급에서 나서는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요청을 드렸다. 그러면서 그는 주석각하를 만나뵈올 때마다 페를 끼쳐드리게 되는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와 같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였다.

《괜찮습니다. 친구들사이에 서로 만나 담화를 나누는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없이 인자하신 그이의 그 인품과 도량에 모든 어려움을 다 잊은 비슈와나스는 자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체사상신봉자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있으며 주석각하께 제기한다고 스스럼없이 말씀드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비슈와나스가 제기하는 모든 요청을 그자리에

서 다 풀어주시며 아무런 격식도 없이 말씀하시였다.

《당신은 백살까지 살아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 권리가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비슈와나스를 위해 오찬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비슈와나스의 가슴에 자주성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훈령으로 깊이 새겨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기껏해야 조선에 경제《제재》조치밖에 취할것이 있겠는가고,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사람들의 경제《제재》를 받고있다고, 우리는 먹을것과 입을것이 있으며 쓰고살 집이 있기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자주권을 잃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미국사람들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에 대한 〈특별사찰〉을 하겠다고 하기때문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으며 이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에 대하여 어쩌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겁나하지 않습니다. …》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분이시였다. 그런 위인만이 력사의 반동들을 정면으로 대항하시며 인류의 자주위업을 이끌어갈수 있는것이다.

참으로 **김일성**주석은 만나뵈올수록 우러러따르게 되는 스승이시였다.

그이를 또다시 만나뵈옵고 돌아온 비슈와나스는 주체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을 더욱 확신하면서 일을 내밀어갔다.

이런 나날속에 드디여 국제**김일성**상리사회가 발족하게 되였다.

해밀톤 그린(가이아나 전 수상)

이노우에 슈하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기 듀프르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도랑크 아싸파트 디아쎄니 (기네청년, 체육 및 예술상)

알바 챠베스 데 알바라도(에꽈도르 과야낄종합대학 부총장)
…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성원들의 국적과 직무, 신앙과 피부색, 언어, 풍습은 다 서로 달랐지만 위대한 수령님을 만민의 태양으로 우러르고 받드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와 같았다. 불타오르는 5대륙의 그 마음들에 떠받들려 바로 국제**김일성**상리사회가 발족되였던것이다.

리사회서기장으로서는 발기자인 비슈와나스가 추천되였다.

그는 곧 리사회의 소재지를 뉴델리로 정하고 인디아정부에 공식 등록하였다.

그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정부에 공식 등록한다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언젠가 비슈와나스는 나에게 솔직히 말하였다.

《나는 인디아주체사상연구학회,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국제**김일성**상리사회를 다 정부에 공식 등록하였소.

인디아와 로씨야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지만 인디아로씨야협회도 아직 정부에 등록되지 않고있소.

오직 조선과 관련된 이 3개의 기구들만 정부에 등록되여있소. 때문에 토론회를 조직하면 정부가 승인해주고 지지해주는것이요.

이 3개의 기구를 정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내가 필요한 절차를 밟으며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것은 누구도 생각 못할것이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소.》

나는 그의 말이 리해되였다.

그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위대한 사상에 공감되여 그 사상을 연구보급하는 길에 스스로 나선 사람만이 발휘할수 있는것이였다.

할바에는 합법적으로 크게 하자는것이 그의 일관한 태도였다. 그의 모든 생각은 즉시즉시 행동으로 넘어갔다.

행동은 웅변이다.

1993년 4월 20일,

그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내외기자들에게 리사회의 결성소식과

국제**김일성**상의 제정내용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인디아의 각 통신들과 샹강(홍콩), 파키스탄,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의 광범한 보도수단들이 이에 대해 널리 보도하였다.

즉시 전파를 타고 5대륙에 퍼져가는 국제**김일성**상의 제정에 관한 소식은 지구우에 자주화의 거세찬 시대적조류가 더한층 굽이치게 하는 사변이였다.

사회주의위업이 풍파를 겪고있는 시기에 국제**김일성**상이 제정된것은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나아간다면 세계자주화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드팀없는 의지와 신념의 과시이기도 하였다.

국제**김일성**상이 제정된 소식에 접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영광은 먼저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일**동지께 드려야 한다는 념원을 강하게 표시하였다.

하지만 이 념원은 그때에 실현될수 없었다. 가장 큰 영광은 먼저 인민에게, 인류에게 돌려주시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비슈와나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5돐을 맞으며 첫 국제**김일성**상을 수여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첫 상을 누구에게 수여하겠는가 하는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다. 그것은 세계에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수가 수백수천만명에 달하기때문이였다.

리사회성원들은 토론을 거듭하던 끝에 이노우에 슈하찌리사장을 추천하였다.

이노우에 슈하찌는 우선 관록있는 학자였다.

맑스주의정통파로부터 주체사상신봉자가 된 그는 국제연구소 연구원, 부리사장으로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주체사상을 해설선전한 많은 도서들을 집필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리사장으로 추천되여 전세계에서의 주체사상연구보급을 위한 일에 한몸 다 바치고있었다. 사실 조선의 적대국 자본주의일본에 살면서 주체사상을 위해 전념한다는것은 목숨을 내건 투쟁과도 같은것이였다.

리사회는 전원찬성으로 그에게 국제**김일성**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는 국제**김일성**상이 제정되여 처음으로 되는 수여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그날은 1993년 9월 7일이였다.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영광의 그 첫 상을 받아안은 이노우에 슈하찌는 5대륙의 저명한 인사들이 모인 뜻깊은 그자리에서 가슴을 들먹이며 이렇게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일**각하의 령도는 현시기 사회주의와 인류의 운명개척의 근본담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먼저 가장 큰 국제적영예를 받으셔야 할분은 **김정일**각하이십니다.》

순간 장내에서는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진정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 자주의 삶을 빛내이려는 세계인민들의 념원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보여주는 숭엄한 화폭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눈굽이 젖어올랐다.

이 순간 그에게는 국제**김일성**상을 제정하려고 발기인집단을 뭇던 일, 국제적인사들과 텔렉스와 팍스를 주고받으며 밤을 지새우던 그 모든 나날들이 참으로 긍지높이 되새겨지는것이였다.

세기의 위인의 존함을 모신 국제상이 제정되고 그 첫 수상자가 배출된것은 인류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다.

이 력사적사변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자부심, 인류의 념원을 실현시켜나가는 성스러운 위업에 한몸을 바치고있다는 긍지감이 있기에 그는 삶을 귀중히 여기고있었으며 보람을 느끼고있었다.

그의 삶의 보람은 그 다음날에 절정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슈와나스를 비롯한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성원들을 친히 만나주시였던것이다.

금수산의사당에서 이들을 뜨겁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국제**김일성**상을 수여받은 이노우에 슈하찌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고 또한 리사회성원들과도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나는 오늘 이노우에 슈하찌선생과 비슈와나스선생 그리고 알바 챠베스 데 알바라도녀사를 만나게 되여 대단히 기쁩니다.

나는 우리 공화국창건 45돐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에 온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나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 있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커다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력과 활기에 넘쳐 말씀하시는 **김일성**동지의 모습은 정녕 그들에게 있어서 자주위업승리의 희망이였고 신심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여나가고있기때문에 당신들은 우리를 지지한 보람이 있을것입니다.》

그이의 말씀은 모두에게 신심을 배가로 더해주었다.

리사회성원들은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께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렸다.

비슈와나스는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해야 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정중히 보고를 드리였다.

《국제**김일성**상을 제정한것은 전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절절한 념원이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석각하의 접견을 받은 다음 인디아에서 주체사상연구학회를 조직할 때에는 거기에 수십명이 망라되여있었지만 지금은 수백만명에 달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심정을 반영하여 이름있는 사람들로 국제**김일성**상리사회를 조직하였습니다. …

저희들이 국제**김일성**상을 제정하고 첫 수여식을 한것은 전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절절한 념원이 실현된 의의있는 사변입니다.》

비슈와나스는 매우 큰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국제**김일성**상을 앞으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적극 선전하는데 공로가 큰 사람들에게 수여하겠다는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은 위대한 령도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저는 앞으로 존경하는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이 세계적범위에서 계속 꽃펴나가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은 그 누구에게 내리먹이여 접수될 사상이 아니라고, 자주적으로 나가자는 사상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그 말씀은 모두의 가슴에 뜨겁게 새겨졌다. 그 누구에게 얽매여 살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가자는 사상이 그 누구의 가슴엔들 스스로 젖어들지 않을수 있으랴.

비슈와나스는 인디아는 매우 큰 나라이지만 **김일성**주석과 주체사상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을 배우는것은 신앙과 같은것으로서 자유로운것입니다.》

그이의 그 말씀에 리사회성원들은 감복하였다.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온 그날은 그들모두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이 더욱 굳어진 뜻깊은 하루였다. 비슈와나스는 국제**김일성**상수상자들이 수없이 늘어나 온 세상에 자주의 함성이 더 높이 울려퍼질 래일의 세계를 그려보았다. 그날을 위해 더 힘차게 일해갈 열정의 힘이 온몸에 새롭게 퍼져갔다.

비슈와나스는 더 많은 일을 하여 위대한 스승의 품으로 더 자주 찾아오리라고 속다짐하였다.

그때부터 국제**김일성**상수상자는 해를 따라 늘어나고있다.

티. 비. 무케르지, 오가미 겡이찌, 아길라르 불가렐리, 도랑크 아씨파트 디아쎄니, 삼 뉴죠마…

이렇게 비슈와나스는 폭풍의 년대, 1990년대를 행진해갔다. 사람은 력사의 풍파속에서 자기를 검증하는것인지도 모른다. 그 풍파속에서 사람은 더 세련되여가는것이며 자기의 모습을 더 완성하여가는것이다.

그렇다. 폭풍속을 나는 새는 더 아름답다.

3. 비보, 가장 슬픈 날

차는 모스크바강줄기를 따라 드넓게 뻗은 강안도로 한복판을 달리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지금 《인터쏘베르》(인디아—로씨야합영기업)로 가고있었다. 오늘저녁 로씨야측 사장과 회사의 금후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한 후 한잔 하게 일정이 되여있었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묵묵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빛을 잃은 저녁해가 모스크바의 거리를 비치고있었다. 멀리, 가까이 보이는 인도마다에 기근이 든 아이들이 행인들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모습들이 보이였다. 《개혁》, 《개편》이 안아온 모습이였다.

쏘련의 붕괴는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국가가 무너졌고 국가에 속해있던 경제가 조락되여갔다.

이런 형편에서 여러 나라들에 있는 기업들을 자식들에게만 방임해둘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돌고도는 비슈와나스였다.

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다니며 출판, 전시기업을 해온 그로서는 그 나라들을 부지런히 돌고돌며 자기 기업을 수습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중에서도 그는 모스크바에 자주 왔다. 사회주의나라들중에서도 제일 큰 기업은 쏘련에 있었던것이다. 맨 처음 쏘련대사관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었기때문에 제일 큰 기업도 쏘련땅에 펴놓았던것이다.

로씨야에는 《인터라즈》의 지사들이 있었다. 역시 광고 및 출판지사들로서 독자적인 기업체들이였다. 이 지사들은 인디아와 로씨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광고들을 다 취급하고있었다. 총지사장은 안드로첸꼬였다. 그는 인디아주재 쏘련대사관에 한동안 파

견되여있은바있는 사람이였다. 그때 그들은 친구로 사귀였던것이다.

이외 《인터쏘베르》가 또 있었던것이다. 이 회사의 기본업무는 전시였다.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모든 기업은 국영이였다.

순조롭게 수십년간을 잘 흘러오던 비슈와나스의 이 모든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다른 체제하에 놓이게 되였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게 되였으니 그야말로 물길이 순간에 거꾸로 돌려진셈이였다.

그 물길이 정말로 거꾸로 가겠는지 아니면 진통을 겪으며 다시 자기 곬으로 가겠는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그 추이를 가늠하며 해를 넘기고있던 년대였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물길을 완강하게 내밀고있었다.

그는 싼크뜨-뻬쩨르부르그에서 진행된 전람회에 참가하고 모스크바에 들어서는 길로 《인터쏘베르》로 가고있는것이였다.

싼크뜨-뻬쩨르부르그전람회는 해마다 진행되는 인디아국가전람회였다. 몇년전부터는 이 시의 새로운 부시장으로 등장한 울라지미르 뿌찐이 이 전람회의 주인인 비슈와나스를 반갑게 맞이하고있었다.

당시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시에는 해외로부터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있었다. 뿌찐은 바로 외국기업의 활용에서 자기의 능력을 솜씨있게 발휘하고있었던것이다.

쏘련붕괴후 로씨야가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속에서 뿌찐은 시장경제를 떠메고나갈 한사람으로 새 출발을 하고있었다.

뿌찐은 비슈와나스를 그저 《비슈》라고 간단히 불렀고 비슈와나스 역시 그를 그저 《뿌찐》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전람회장을 돌아보며 실무적인 토론을 하군 하였다.

전후부터 로씨야를 대상해온 비슈와나스는 싼크뜨-뻬쩨르부르그에서만이 아니라 모스크바에서도 인디아국가전람회를 자주 개최해왔다. 그는 그때마다 이 나라의 수반들을 만나보군 하였다.

쓰딸린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수없이 밟으며 합영합작을 해온 비슈와나스도 이때에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시의 체소한 이 부시장이 불과 몇년후에 로씨야를 강력하게 다스리게 될 인물로 나서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할수 없었다.

이 세상의 적지 않은 인물들을 만나본 비슈와나스였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는 그를 싣고 차는 모스크바강줄기를 따라 계속 달리고있었다.

이때 운전사가 라지오를 틀어놓았다. 라지오에서는 같은 보도가 계속 반복되여나오고있었다.

순간 비슈와나스는 모든 생각에서 깨여났다. 그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차를 좀 세우라구.》

《여기선 차를 못세웁니다.》

운전사는 창밖을 두리번거리였다.

비슈와나스의 가슴은 떨렸다. 믿어지지 않았다. 비분으로 몸부림치는 그는 자기자신을 잊은듯싶었다. 그는 당장 달리는 차밖으로 뛰쳐나갈 자세였다.

그러는사이 차는 급기야 한 골목길로 꺾어들며 멈춰섰다.

비슈와나스는 차에서 뛰쳐내렸다. 가슴이 답답하였다. 숨이 찼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항상 푸르게 열려있던 그의 마음속의 하늘은 이 순간 여지없이 무너져내리고있는것이였다.

그의 마음속에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의 마음속에 날고있는 자유의 새가 몸부림쳤다. 그는 비칠거렸다.

아, 이럴수 있단 말인가, 정녕 이럴수 있단 말인가.

비슈와나스는 다시 차안으로 들어가 자기 손으로 라지오의 다른 통로들을 돌려보았다. 다른 통로들에서도 같은 보도를 반복하고있었다.

김일성주석께서 가시다니?

이것은 청천벽력이였다. 말그대로 마른 하늘에서 내리는 벼락이였다. 정녕 그이는 가실수 없는분이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고 부인할수도 없는 그이는…

비슈와나스는 한동안 조각상처럼 까딱할수가 없었다.

그는 가던 길을 갈수가 없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어지러워져도 그이의 하늘아래서 태양의 그 빛발을 받아 희망을 안고 걸어가던 비슈와나스였다.

《차를 돌리게.》

운전사는 의아쩍은 눈길을 들며 물었다.

《어디로 말입니까?》

《조선대사관으로, 빨리!》

이렇게 되여 《인터쏘베르》로 향하던 비슈와나스의 걸음은 《조선》으로 가게 되였다.

방향을 바꾸어 달리는 차안에서도 그는 모든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세상을 놀래우는 이 비보가 사실이 아니였으면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바랐다.

한껏 길어진 한여름의 해도 어느덧 뉘엿뉘엿 기울어지고있었다.

레닌산(당시)을 지나 《모스필림》촬영소를 지나 대사관촌이 가까와올수록 그의 가슴속엔 설음이 더더욱 북받쳐올랐다.

조선대사관앞에 이른 그는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대사관은 접수구에서부터 울음바다를 이루고있었던것이다. 마당에서는 조선녀성들과 아이들이 왕왕 통곡하며 울고있었다.

나라의 아버지를 잃은 국상앞에서 그 누가 오열을 터뜨리지 않을수 있으랴.

정녕 이 비보를 믿어야 하는가.

조선대사관으로 오면서도 그의 가슴속에는 자기도모르게 **김일성**주석은 신적인 존재이기때문에 그 어떤 신령이 나타나 다시 그이를 부활시켜주는 기적이 일어날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은연중에 자리잡고있어 모든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던 마음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믿어야 했다.

조선으로 가야 했다. 그는 사증을 요구하였다. 대사관에서는 공화국에서 외국의 조객들은 일체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것을 알려주는것이였다. 하여 그는 조선에 올수 없었다.

하긴 외국의 조객들을 받는다면 조선땅은 넘쳐날수도 있으리라.

사실 20세기는 그이의 존함과 더불어 저물어가고있었던것이다.

그날저녁 그는 숙소에서 잠들수 없었다. 마실수도 먹을수도 없었다. 텔레비죤의 모든 통로들에서 **김일성**동지의 업적을 보도하고 있었다.

그이의 서거를 두고 온 세상이 떠들고있었다. 위인의 진가는 사

후에 더 뚜렷이 나타나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1977년 4월 그이를 처음으로 만나뵈온 때로부터 1993년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그이의 접견을 받는 행운을 지니였던 그 모든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한밤을 지새웠다.

김일성! 그이는 도탄속에 빠진 조선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억만 인류의 모습을 빛내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성인이시였다.

그이는 젊으신 나이에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였고 부활시켜주시였으며 인류가 나아갈 자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는 세계정치의 원로이시기 전에 대성인이시였으며 탁월한 국가수반이시기 전에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이름은 다 몰랐지만 그이의 존함은 누구나가 알고있었다.

그이의 존함은 주체의 이름으로, 자주의 상징으로 온 세상사람들의 마음속에 빛나고있었다.

사회주의가 곡절을 겪는 엄혹한 현실앞에서도 주체사상신봉자들과 진보적인류는 오직 그이만을 우러르며 신념을 잃지 않고있었다. 오히려 그들은 더 힘차게 자주위업의 한길에 떨쳐나서고있었다. 더욱 크게 벌려온 주체사상국제토론회들과 계속 출판되는 도서들이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와 오가미 겡이찌를 비롯한 첫 세대 주체사상신봉자들이 그 앞장에 섰다. 그리하여 쏘련이 붕괴된지 2달만에 뉴델리에서 세계의 자주와 평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으며 그해 4월에는 도꾜에서 현시대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련이어 진행되였던것이다.

이해에 들어와서만도 2월에는 캄팔라에서, 4월에는 또다시 뉴델리에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었다.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인민대중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목소리는 온 세계대륙들에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이해 4월 15일을 맞으며 또다시 2권의 도서를 세상에 내놓았다.

《**김일성**주의. 자주, 평화, 진보와 번영의 기치》(뉴택크출판사.

2004)라고 제목을 단 도서는 그가 쓴 리론도서였다.

책의 제명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비슈와나스는 이 글에서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서의 **김일성**주의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폭넓게 전개하였다.

또한 글에서는 **김정일**동지의 로작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에 기초하여 현정치정세를 과학적으로, 리론실천적으로 해설론증하였다.

그는 또한 주권과 독립을 위한 인디아인민의 대중투쟁의 전력사와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오늘의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비슈와나스가 주체사상과 조선에 대하여 쓴 10여권의 단행본중에서 이 책은 제일 부피가 두터운 리론도서였다.

다른 한권의 책은 《인류해방의 구성》(뉴. 에이쥐출판사. 1994)이라는 제목을 달고 비슈와나스가 자기와 무케르지, 고빈드가 쓴 회상실기들을 묶어 단행본으로 내놓은것이였다.

비슈와나스가 내놓은 이 2권의 도서는 그해 4월 15일을 뜻깊게 장식하였다.

비슈와나스는 가슴속에 꿈을 안고있었다. 그 꿈은 20세기를 총화하며 온 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대축전을 인디아에서 마련하고 **김일성**주석을 모시는것이였다.

그 찬란한 꿈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말없이 그날을 향해 직심스레 줄달음쳐가던 비슈와나스였으니 이날의 그의 찢어지는 심장의 아픔이 어떠했으랴.

그가 조선을 사랑하게 된 리유는 두가지였다. 그것은 우선 주체사상에 대한 매혹이였고 다음은 위대한 그 사상의 창시자께서 조선에 갈 때마다 반겨맞아주시였기때문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몸부림쳤다.

만나주실 때마다 벗으로, 전우로 대해주시던 그처럼 위대한 벗, 위대한 스승, 위대한 태양을 잃었으니 그의 마음속의 하늘은 어두워지고 그 하늘에서 한껏 날아예던 자유의 새는 품을 잃고 허우적이는것이였다.

김일성주석과 같은 위대한 심장, 천재적인 두뇌를 잃는다는것은 우리 행성의 손실이며 인류력사의 많은것을 다 준대도 보상할수도 메꿀수도 없는 파격적인 공백이였다.

비록 땅덩어리는 크지 않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지만 조선이 세계의 페활량을 조절할수 있을 정도로 세계의 움직임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김일성**주석을 모시고있었기때문이였다.

미국의 전대통령 지미 카터도 그이를 한번 만나뵙고는 기자들앞에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은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하였던 3대대통령들인 죠지 워싱톤,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을 다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분이시다. **김일성**주석은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건국자들과 태양신들을 다 합친것보다도 더 위대한 인간, 운명의 태양신이라는것을 나는 서슴없이 말하게 되는바이다라고.

이렇듯 조선의 적대국의 인물들까지도 한번 만나뵙고는 거룩한 그 인품에 완전히 반하던 인류의 대성인을 잃었으니 정견과 신앙, 국적과 언어, 피부색에 관계없이 세계의 모든 인민이 **김일성**주석을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고있는것이였다.

아, 지구의 무게, 행성의 무게를 더해준 그런 위대한 심장이 멎을수 있단 말인가.

세계자주위업이 진통을 겪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주위업의 태양이 떨어졌으니 세계여, 너는 어느 길로 가려는가.

동란의 이 세기에 태여나 비로소 주체사상을 알고 **김일성**주석을 수호신처럼 믿고있던 비슈와나스에게 있어서 이날은 눈물의 날, 비애의 날이였다.

인디아에는 눈물로는 갈증을 끄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 눈물과 비애로는 타는듯한 그리움을 달랠수 없는 법이다.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거룩하신 인덕으로 천하를 깨우쳐 자주의 미래를 열어주신 그이께서 어찌 가실수 있으랴.

위인은 한세기에 한번이나 나나마나 하다.

그런 위인은 사람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다.

비슈와나스는 **김일성**주석은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와 같은 신앙적존재우에 서있는 전설적인물이였으며 현대의 가장 탁월한 수령이시였다고 자기자신과 끝없이 말을 나누며 잠못들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춘 날은 1994년 7월 8일이였다. 그 비보가 세상에 알려져 인류가 몸부림친것은 그 다음날이였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던 그날은 비슈와나스의 전생애에서 가장 슬픈 날이였다.

4. 진리의 수호자

비슈와나스의 사무실책상우에는 한장의 큰 사진이 금빛액틀에 끼워 정중히 놓여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웃으시며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사진이다.

언제나 그 사진을 보고 또 보며 그날의 영광속에 살고있는 비슈와나스였다.

지금 그의 앞에는 한권의 소책자가 놓여있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불멸의 이 로작을 읽은 비슈와나스는 커다란 흥분과 격정을 안고 위대한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고 또 우러러본다.

해빛은 가리울수 없다.

구름이 층층 가리워도 태양의 그 빛발은 어둠을 뚫고 지구를 비치기마련이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당하였지만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의연히 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것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미한다!

온 세상에 울려퍼지는 그이의 선언은 해빛이였다. 광명이였다.

얼마나 명철한 분석이며 정확한 평가인가.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하여 일시 가슴아픈 곡절을 겪고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라는데 대해 명백한 대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후 **김정일**동지께서 처음으로 발표하신 이 저작은 세계의 정치가, 사상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사고해야 했다.

세계정치계의 수많은 인사들은 이 저서를 《20세기 공산당선언》이라고 표현하였다.

사회주의정치의 론설가로 알려진 비슈와나스가 가만있을리 없었다.

그는 맑스의 《공산당선언》이 맑스주의를 지침으로 하는 사회주의운동의 개시를 선포한 선언이라면 **김정일**동지의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하는 사회주의운동의 재건과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진군을 선포한 《20세기 자주인류의 선언》이며 하늘이 내린 《인류미래의 안내서》라고 썼다.

위인의 높이는 사상의 높이이다.

김정일동지는 이 저서 하나만으로도 인류사상사의 맨 정점에 올라서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현시대의 정신적지도자로 공인되여야 할것이였다.

그이는 사회주의와 인류자주위업의 상징이시였다.

비슈와나스는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을 휩쓴 실업과 빈궁의 눈물겨운 정상들을 보면서 종교적표현을 빌어 마음속으로 기원하고있었다.

주여! 20세기말에 사탄의 무리들이 개혁의 미친 바람을 일으켜 선량한 인류를 삼키려드니 선악을 가리시여 구약의 창세기처럼 악마들에게 또다시 《노아의 홍수》를 터쳐주소서.

마음속으로 새날을 념원하며 그가 하늘처럼 믿고 바라보는분이 계시였으니 그이가 바로 **김정일**동지이시였다.

그이의 존함은 이 한권의 저서만으로도 온 누리를 꽉 채우는듯싶었다.

자주를 지향하는 인류의 선량한 마음들이 그이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였다.

돌이켜보면 **김일성**주석의 서거를 두고 《태양이 꺼진》데 비유하여 조선의 장래와 인류자주위업의 래일에 대하여 우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때 서방세계가 평가한 조선의 앞날은 락관적인것이 못되였다. 권력이양기에 나라마다 항용 그러했듯이 정치적동란이 반드시 동반될것이라는것이 그들의 예측이였다.

력사의 그 어느 갈피를 헤쳐보아도 모해와 음모, 피로 얼룩지지 않은 권력계승이 없었던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쉑스피어의 《햄리트》와 같은 비극이 만민의 공감을 자아내는것인지도 모른다. 유고가 있은 때로부터 적지 않은 시일이 지나도록 주석추대행사가 진행되지 않자 서방정치계의 촉각은 더욱 곤두섰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방의 험담군들은 점점 아연해졌다.

조선에서는 정치적동란이 아니라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에 구상하시였던 대상건설이 대규모적으로 시작되고 최대한의 안정속에 온 나라가 주석의 유훈관철로 새롭게 태동하기 시작했던것이다.

아무런 변화없이 주체의 한길을 끗끗이 가는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의 모습은 세계의 눈길을 끌었다. 지지자들에게도, 사탄의 무리들에게도 조선은 초점이 되였다.

구심점을 잃은 집합체는 사막의 모래알처럼 흩어지기마련이다.

만민의 어버이를 잃고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눈물의 바다를 펼치고 한없는 비애에 잠겨있던 인민이 어떻게 되여 피눈물을 힘으로 바꾸며 거연히 일떠서고 더더욱 굳게 뭉치게 되였는가. 그 마음의 기둥, 그 신념의 뿌리는 과연 무엇인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서방정치계로서는 쉽게 풀릴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조선인민을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결속시키고 산악같은 힘으로 일떠세우신분은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세계는 여기에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였으니 그것은 **김정일**동지께서 계승하시는것이 선행시대의 단순한 권력계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경지의 계승 즉 권력이나 직위계승이 아니라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인류의 자주위업계승이라는것이였다.

이것은 서방정치계가 받은 가장 큰 충격이였다.

김정일동지!

그이 역시 하늘이 낸분이시다.

김정일동지를 또한분의 령도자로 모신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행운이 아닐수 없었다.

진보적인류의 가슴에 그이의 존함은 이미 자주의 상징으로 깊이 새겨져있었다.

비슈와나스는 **김정일**동지께서 자기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는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그이의 맥박이, 세계를 호흡하는 그이의 숨결이 온몸에 새로운 활기를 부어주며 흘러드는듯싶었다. 순간 그는 소스라쳐 놀라듯 일어서며 부르짖었다.

아, 주체의 태양은 영원히 빛난다!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그 찬탄의 목소리는 그대로 시줄이 되여 줄줄이 흘러나왔다.

아, 주체의 태양은 영원히 빛난다!

찬란하도다 찬란하도다
무변광대한 행성우에
자주적인류의 머리우에
찬란한 태양으로 빛나시는 그이!

진정 인류에게
자주위업의 명맥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그이가 없었다면
회오리광풍속에
어지러운 잡먼지속에
어이 래일을 분간할수 있었으랴
…

위대한 그 태양을 우러러
5대륙이 손에 손잡고
불러라 한마음한뜻으로
주체 — **김정일**!
김정일 — 주체!
…

그의 머리속에는 사회주의를 꿋꿋이 지켜가는 조선의 모습이 드놀지 않는 강철의 성새처럼 안겨왔다. 제것을 가진 주인만이 세상앞에 떳떳하고 제식으로 사는 인민만이 누구도 건드릴수 없음을 제힘으로 건설한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조선은 만방에 선언하고있었다.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천만심장이 하나로 단결된 조선의 모습은 정녕 위대한 그이의 모습이였다. 이 모든것을 줄줄이 써내려가는 그의 감정은 더더욱 승화되여 넘쳐흐를듯이 고동쳤다.

우러를수록 위대하여라
오, **김정일**! 그이는
인간만세의 화신
인류해방의 구성
새 세기의 창조자

김정일! 그이는
주체의 궤도우로
지구를 돌리시는
우주의 중심
…

그렇다 **김정일**!
그이의 사상을 따르는것이
자주를 이룩하는것이기에
그이를 단결의 중심에 받들고

5대륙은 이렇게 합창한다

만세!
만세!
김정일 만세!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이렇게 그는 시를 맺음지었다. 이 부분은 그가 오래전부터 써오던 서사시의 제3장으로 되였다. 그는 서사시의 제목을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라고 달았다. 이 서사시는 그가 한생의 걸음걸음으로 쓴 체험의 분출이였다. 시는 **김정일**장군님께 바쳐진 송가였다.

그가 시에서 노래한것처럼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사회주의조선은 끄떡없었다. 인민대중이라는 튼튼한 대지에 뿌리를 깊숙이 박은 거목은 그 어떤 광풍에도 드놀지 않는것이다.

가자, 조선으로! 그이의 품으로!

김정일동지!

그이는 **김일성**동지와 꼭같은 모습으로 떠오른 주체의 태양이시였다.

5. 영생하시다

물어보자, 세상사람들이여!

영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대의 피라미드인가, 중세의 타지마할인가.

피라미드는 흐트러지지 않는 계단식의 그 웅장한 위용을 오늘도 하늘에 솟구고있으며 타지마할은 둥글고 뾰족한 탑을 오늘도 세상에 빛내고있다.

과연 거기에 그 누구의 영생이 깃들어있는가.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간주하며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 살 집

이라고 생각한 왕들이 과연 피라미드에서 영생하고있는가. 먼저간 왕비를 못잊어 품을 들여 그 탑을 세운 왕이 과연 왕비와 만나 타지마할에서 영생하고있는가.

무제한한 권력을 쥔 군주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의 집》으로서 피라미드도, 타지마할도 세웠지만 영생의 삶은 그속에 깃들지 않았다.

오늘날 그 기념비들은 다만 통치계급의 무제한한 전횡의 산물로서 전제군주제도의 포악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근로인민의 슬기로운 지혜를 전해주고있을뿐이다.

사람들이여!

영생의 삶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심장속에 있는것이다.

영생의 의미, 그것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바친 고결한 삶이 인류와 더불어,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것이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새 세계를 위해 인류의 위대한 사상을 내놓으신 만민의 성인이 인류와 더불어, 력사와 더불어 영생함은 진리이다.

사람들이여!

진정한 영생의 의미를 알려거든 여기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 와보시라.

인류에게 영생의 의미를 깨우쳐주시고 자신의 한생의 모범으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95년 9월 15일,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한 비슈와나스와 무케시 샤르마, 키란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수천수만의 방문객들이 오갈수 있게 뻗어간 두줄기 궤도며 아담하면서도 정연하게 꾸려진 정류소와 넓은 광장이며 궁전으로 들어가는 길고긴 복도에 두줄기로 놓아진 승강기며…

궁전안에 들어서니 붉은 조명속에 **김일성**주석의 대리석립상이 숭엄하게 안겨왔다.

주체의 노을이 피여나는 여기에 **김일성**주석께서는 변함없이 서계시며 온 세상의 벗들을 맞이하고 만나주시는것이였다.

황홀하였다. 그것은 단지 재능과 지혜의 정수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수령의 위업에 충직한 위인의 손길이 닿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였다.

현대과학기술의 최정수로 꾸려진, 모든 시설을 그쯘히 갖춘 복도와 방을 거쳐 그이께서 분망한 사업을 하시다가 잠시 쉬시는듯 조용히 누워계시는 방으로 들어서는 그들의 가슴은 자기들도 모르게 높뛰기 시작하였다.

생전의 모습그대로이신 **김일성**주석을 뵈옵는 순간 하늘을 꽉 채운 그이의 태양의 모습이 금시 품안아주실것만 같아 비슈와나스는 눈시울이 축축히 젖어왔다.

1977년 9월 15일 자기 부부를 불러주신 그이께서 생일을 축하한다고 친근하게 말씀하시던 그 음성이 금시에 귀에 쟁쟁하게 울려오는듯싶었다.

부모는 자식의 생일날에 가장 큰 축복을 안겨준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생일날을 잊지 않으시고 축하해주시며 온 하루를 함께 보내주신 인류의 어버이의 그 사랑을 잊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해부터 자기의 생일을 평양에 와서 쇠기로 결심한 비슈와나스였다. 그이의 그 사랑을 못잊어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그이를 뵈오려온 비슈와나스였다. 영원히 그이의 축복을 받으며 그이의 품에서 살고싶은 마음이였다.

《주석각하! 당신의 전사 비슈와나스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김일성동지께 삼가 인사를 올린 다음 그는 그사이 자기에게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이며 올해에 있었던 주체사상토론회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보고를 드리였다.

《나의 전우가 왔구만!》

비슈와나스는 언제나와 같이 자기를 전우로 불러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이의 친근한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모습은 그에게 자신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확신성있게 간직할수 있게 하는것이였다.

무케시와 키란은 많은 일을 해놓고 그이앞에 나서려고 생각했던 자기들의 걸음이 늦어진데 대한 자책을 안고 **김일성**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인에 대한 비슈와나스의 흠모심은 그대로 자식들의 가슴에 슴배여들었다.

정녕 **김일성**주석께서는 세계의 수억만 사람들을 여기서 맞고 바래시며 영생하고계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면 세계정치사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대도 주체의 붉은 노을은 영원히 피여 온 지구를 덮으리라!

이것이 금수산기념궁전을 돌아보면서 비슈와나스와 그의 아들부부가 가슴속깊이 새긴 믿음과 확신이였다.

금수산기념궁전은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김일성**동지를 생전의 모습그대로 모심으로 하여 주체의 최고성지로, 자주시대 지구의 심장부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나고있었다.

주체사상이 구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무케시부부는 주체의 시점에서 이 세계를 다시한번 투시해보게 되는것이였다.

후계자가 위대해야 수령이 영생한다는 진리, 이것이 그들모두가 **김일성**동지의 서거 1돐을 맞으며 조선을 방문하여 찾은 최대의 해답이였으며 세계사회주의운동앞에 웨치고싶은 말이였다.

위인의 력사는 계승되여야 빛난다.

비슈와나스는 누구에게라없이 자기의 심장속에 이렇게 속삭였다.

《업적을 남긴 생은 후세의 영광을 받아 영원히 살아숨쉬리라!》

6. 전우의 최후

행렬의 맨앞에 고인의 두 아들과 알따브 후쎄인 그리고 자베드 안싸리가 령구를 메고 천천히 걷고있었다. 그뒤를 따라 늘어선

사람은 600여명…

그들모두는 말이 없다. 묵묵히 걷고만 있을뿐.

하지만 그들모두는 말하고있었다. 마음속으로 아브둘 말라크와 심장의 대화를 나누고있었다.

아브둘 말라크는 그들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웨쳤다.

《친근한 나의 동료들, 부탁컨대 주체의 이길을 끝까지 가달라. 이길에 우리 운명,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이 있음을 잊지 말라!》

아브둘 말라크의 뒤를 따라선 이들은 지금 심장을 터쳐 웨친 그의 절절한 이 말에 마음속으로 화답하고있었다.

《아브둘 말라크여, 마음놓고 편히 가시라.》

《당신의 말은 우리의 걸음걸음에 영원히 울릴것이다.》

그날은 1997년 2월 8일이였다.

파키스탄에서 그렇게 큰 규모로 전국토론회가 열리기는 처음이였다.

아브둘 말라크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이날을 위해 모든 심혈을 다 바쳐왔던것이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세계의 벗들이 국제토론회준비로 들끓을 때 그는 국내토론회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비슈와나스에게 말하였다.

《나는 우선 우리 나라에서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으로써 세계의 자주화에 적극 이바지하겠네. 모든 나라에서 다 자주화가 실현되면 그것이 곧 세계의 자주화가 되는것이 아니겠나?!》

《자네 말이 옳네. 그럼 내가 도꾜토론회에 갔다올 때까지 건강을 바라네.》

이렇게 하고 헤여졌던 아브둘 말라크가 전국토론회장에서 열변을 토하다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던것이다.

그 토론회에 참가하였던 600여명의 동료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애절한 그들의 그 부름도 심장이 파렬된 그를 다시 일궈세우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 많은 동료들의 바래움속에 이 세상을 갔던것이다.

도꾜국제토론회에 참가하였다가 2월말에 뉴델리에 돌아와서

이 소식을 알게 된 비슈와나스는 피로를 풀새도 없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수천리길을 날아왔다.

만나면 그리도 반가와하며 길게 기른 뒤머리를 좌우로 흔들던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비슈와나스는 그가 갑자기 나타나며 자기를 놀래우려고 어디엔가 숨어있는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너부죽한 얼굴, 꾸밈이 없고 열정적이던 그 모습은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비슈와나스의 가슴은 미여지는듯 아팠다.

장례는 이미 끝난 뒤였으나 그의 출현은 파키스탄신봉자들의 가슴을 후두둑 뛰게 하였다.

당년 그의 나이 71살이였다.

하지만 그는 지칠줄을 몰랐다. 오직 주체의 힘으로 내짚는 그의 걸음앞에 육체적한계가 허물어진것인지.

전우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의 가슴은 쓰렸다.

사혜지드는 그날아침에 가쁜숨을 몰아쉬는 아브둘 말라크에게 말하였다.

《여보, 내 말을 들어요. 움직이면 안되겠어요.》

울상이 된 안해를 안심시키려는듯 아브둘 말라크는 애써 웃음을 지어보이며 뜨직뜨직 말하였다.

《고맙소. 그러나 일없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지탱하는 길은 계속 걸어가는 길이요. 자, 그러지 말고 나를 좀 부축해주오.》

사혜지드는 더 어쩔수가 없었다.

이렇게 그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장의 연단에 나와 마지막 심장의 말을 터친 아브둘 말라크였다.

동료들의 말을 들으며 그는 신념의 인간들이 간주한 자주위업의 정당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것이였다.

이제는 친구들도 하나둘 비슈와나스의 곁을 떠나간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들처럼 살면 될것이였다. 주체의 한길에서 영생의 삶을 빛내이면 더 바랄것이 없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리유였다.

비슈와나스는 사헤지드와 그 자식들이 아브둘 말라크가 간 정의의 길을 억세게 이어가기를 바랐으며 그길로 더 많은 사람들을 떠밀었다.

《동무들, 우리모두 아브둘 말라크처럼 주체의 길에 이 한몸을 다 바칩시다.》

자베드 안싸리가 이에 적극 호응하였다.

만날수록 믿음이 가는 친구였다.

그는 이미 1978년에 조직하였던 대학생 **김일성**주의연구소조를 1982년말에 청년 **김일성**주의연구소조로 개칭하고 보다 광범한 각계각층의 청년들속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벌리고있었다.

이제는 그도 40고개에 이르렀다. 지금 그는 보다 큰 조직의 결성을 위한 그 준비의 마감단계에 있는 상태였다. 그 조직은 이제 곧 태여나게 될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였다.

자베드 안싸리는 카라치의 아담지보험회사 직원으로서 넉넉한 생활을 하고있는 형편은 아니였지만 그 역시 아브둘 말라크처럼 시대의 사상에 공감하여나선 선각자였다.

비슈와나스는 그와 주체사상연구보급에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를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마음속으로 부단히 가르침을 받고있었다.

자베드 안싸리는 말하였다.

《아브둘 말라크선생은 자신의 활동으로 끝까지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비슈와나스선생의 우애심과 지칠줄 모르는 정신력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습니다.》

《아니, 고무적힘을 받은것은 나요. 당신들의 투쟁은 나에게 백배의 힘을 안겨주었소.》

자베드 안싸리와 같은 젊은 선각자들에 의하여 아브둘 말라크가 걸은 주체의 길은 파키스탄에서 계속 이어지고있는것이였다.

아브둘 말라크는 1977년부터 20년간 해마다 조선을 방문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여러번 받고 참된 삶의 새 생명을 받아안은 주체사상신봉자의 한사람이였다.

그는 주체사상신봉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불태워 동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신념의 인간의 숭고한 모습을 이 세상에 남기였다.

파키스탄의 주체의 전사, 아브둘 말라크는 그렇게 갔다.

그의 죽음은 그의 생활과 같이 깨끗하였다.

사람들이여, 죽었다고 죽었다고만 보지 말라. 산 사람들이 잊기 전에는 죽은 사람도 살아가는것이다.

그는 생전에 그가 말한것처럼 주체사상탑에 고여진 그 푸른색옥돌과 더불어 영생하고있는것이다. 생명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였기에 그는 자기의 생명을 값있게 바쳤다.

조국과 인류를 위한 죽음, 이는 생명의 연장이다.

그는 생의 최후에 인생을 찬양하였다.

아름다와라, 눈을 감으면서도 래일의 세상을 찬양한 주체의 인간!

그는 미래를 사랑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것이 잃어져도 영원히 남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이다. 그 미래에 생을 얹고 사는 사람은 그 미래와 함께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것이다. 인생의 그 진리를 터득한 그는 행복하였다. 그는 그 생을 즐기였다. 그 생을 즐기며 그는 웃으며 영생의 길을 갔다.

이런 삶을 두고 누가 감히 끝났다고 말할수 있으랴.

성스러운 위업에 한몸을 바침으로써 그는 오래오래 울리는 생명의 음향을 이 세상에 남기였다.

태여나고 태여나는 수많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마음속에 그의 목소리는 오늘도 쟁쟁히 울리고있다.

《친근한 나의 동료들, 부탁컨대 주체의 이길을 끝까지 가달라. 이길에 우리 운명,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이 있음을 잊지 말라!》

7. 새 천년기를 향하여

파키스탄에서 돌아온 후 비슈와나스는 《인터라즈》를 통채로 맏아들에게 인계하였다.

미래에 대한 강렬한 지향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그에게 부닥친 현실이 다른 이여의 모든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를 주지 않았던것이다.

아시아지역 연구소의 실태가 그러했다.

무케르지는 악화되는 병을 안고 이미 몇해째 전혀 운신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실태에서 며칠전에 갑자기 고빈드가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고빈드는 자다가 깨여나지 못하였다.

기가 막히였다.

비슈와나스의 눈앞에는 20년전 새파란 그를 인디아공산당에서 뽑아오던 일이 선하였다.

주체사상에 접하여 그리도 활기에 넘쳐 뛰여다니던 그 모습, 국제토론회때마다 소년축하단을 맡아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북도 치고 시도 읊던 그 목소리는 신봉자들의 기억속에, 주체사상연구보급의 성스러운 력사의 갈피에 길이길이 새겨져있을것이다.

세월은 진실하고 공정하련만 누구에게나 젊음과 늙음을 똑같이 부여하지는 않은듯싶다.

세월앞에 제 젊음과 늙음을 흥정말라.

비슈와나스는 많은 일을 앞에 놓고 벗들이 떠나가는것이 가슴이 아팠다.

벗은 곧 재산이다. 벗이란 자기밖의 자기인것이다.

당장은 지역연구소를 누구든지 이끌어야 했다. 여러 나라들에 리사는 있지만 현재 연구소의 전임일군은 다 없어졌다. 먼저 쓰러진

무케르지와 예고없이 간 고빈드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참으로 그들은 생활과 현실속에서 시대의 사상의 진리를 깨닫고 그 연구보급에 한몸을 바쳐나섰던 금싸래기들이였다.

지역연구소의 일은 하루도 한시도 멈춰서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여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기업을 통채로 인계하고 지역연구소사업에 전적으로 나서게 되였던것이다.

힘이 들었다. 그도 이제는 70고개를 넘어선것이였다. 하지만 가야 했다. 난관이 닥쳐왔다고 하여 탄식만 하는 인간은 실로 보잘것없는 존재일것이다.

그는 맏아들 안일 샤르마에게 말하였다.

《나는 〈인터라즈〉리사회의 결의권도 갖지 않겠다. 일체 상관하지 않겠다. 총사장이란 명목상이다. 아니, 그런 명목도 필요없다.》

그다음 그는 셋째아들 무케시 샤르마에게 부탁하였다.

《제일 좋은 콤퓨터설비와 통신기재를 여기에 한조 차려주렴. 그리고 그것을 다루며 아시아지역 연구소의 사무처리를 맡아할수 있는 전임서기를 한명 물색해주렴.》

곧 그의 사무실에 잇닿은 방에 사람보다 먼저 콤퓨터설비와 통신기재가 와닿았다.

사람은 나이들수록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조예를 가지고 그에 상응하게 자신을 따라세울 때만이 시대의 한 성원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떳떳이 차지할수 있는것이다.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보다 심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업에 인류가 이룩한 최신과학성과들을 무조건, 그것도 빨리 도입해야 하는것이였다.

그 당시 셋째아들이 운영하는 전시쎈터와 호텔들에서 정보산업분야의 최신성과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있었다. 그래서 비슈와나스는 그것을 그 분야에 조예가 있는 무케시에게 부탁하였던것이다.

혼자 사무실에 틀고앉아 붐비는 비슈와나스가 념려되여 싼또쉬 꾸마리가 무엇을 싸들고 드문히 여기에 나타났다. 그때마다 비슈와나스는 왜 또 나왔는가고 하면서도 이제는 로친이 된 그가 더없이 귀하고

미더운지 한참이나 자기가 설계하고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군 하였다. 그러면 싼또쉬 꾸마리도 더없이 좋아하며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말없이 자기가 도와야 할 일들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군 하였다.

녀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타고난 천성은 변함없는듯 하다.

싼또쉬 꾸마리의 머리는 이제 더는 검은색이 없는 완연한 은백색으로 변하였어도 그것은 겉모양일뿐 순결한 그 마음만은 예나 다름이 없었다. 그 마음은 그의 얼굴에 비끼는 그 순결한 미소가 다 말해주고있었다.

녀성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사랑이 깃들면 그 사랑을 한생 간직하고 따른다.

고마왔다. 비슈와나스는 별로 살틀하지도 못한 자기를 순결한 사랑으로 한생 리해했고 받들어준 싼또쉬 꾸마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없이 고마왔고 귀했다. 그에 대한 감사는 두고두고 드려야 할것이다.

결혼전 그들에겐 끝없는 랑만과 번뇌로 이어진 사랑의 속삭임도 없었고 격동적이고 가슴을 벅차게 한 그 어떤 일도 없었다. 그런들 어떠리, 그런 사람들보다 더 그들의 사랑은 세월따라 깊어지고 뜨거워지는데…

얼마 안있어 무케시가 알선한 전임서기가 왔다. 그는 날씬한 자태를 가진 아릿다운 처녀였다. 무케시는 직업소개서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중에서 고르고골라 선택하였다는것이다. 물론 그의 로임은 비슈와나스가 지불하여야 했다. 그래도 좋았다. 문장을 만들줄 알고 최신설비를 다룰줄 안다니…

이때부터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사무실을 《주체사무실》이라고 공식적으로 불렀다. 그리고 여기에 틀고앉아 학회사업과 함께 지역연구소사업을 작전했고 포치했고 받아들이였다.

그의 사무실출입문 한쪽에는 여전히 화분에 심은 종려나무가 사철 푸른 잎새를 머리우까지 펼치고있었다. 그 종려나무밑으로 이제는 《인터라즈》관계자들이 아니라 주체사상신봉자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섰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가 이리로 이사온것이였다.

《인터라즈》를 통채로 넘겨받은 맏아들도 이 사무실에만은 복

종해야 했다. 이 사무실의 주인이 사장의 아버지이기에 앞서 《인터라즈》의 창시자임에야!

그리고 그 이름은 변함없이 전세계에 《인터라즈》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는데야!

더우기는 오늘 이 사무실이 《주체사무실》이라는 보다 신성한 이름으로 불리우는데야!

이때부터 《인터라즈》의 회의장, 연회장을 비롯하여 사용할수 있는 모든것들이 《주체사무실》의것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위대한 사상의 빛발을 전세계에로 날리는 이 《주체사무실》에 찾아와 운명과 앞날에 대해 론의했으며 새로운 락관을 안고 떠나가군 하였다.

그 방으로는 국회의원으로부터 평범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 드나들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명망높은 인사들도 찾아왔다. 그들속에는 나이 지숙한 사람, 젊은 사람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이 다 있었다.

《주체사무실》로 하여 《인터라즈》의 청사가 낯을 깎일것은 없었다. 오히려 위신이 더 올라가는듯싶었다.

《주체사무실》을 거점으로 하여 국내망은 물론 지역의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의 망이 형성되였고 지역연구소의 전자우편과 홈페지가 새롭게 개설되였다. 따라서 주체사상연구보급에서 보다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게 되였고 화면을 통하여 광범한 군중들과의 문답을 자유롭게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때부터 그 처녀가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전임서기로서 많은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였다.

그 처녀의 이름은 씨마 꾸마리.

아름다운 그의 미모는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며 책임적인 그의 사업에서 더욱 부각되여 빛을 뿌리였다.

씨마 꾸마리는 지역연구소의 정기간행물인 《주체의 시대》와 연구소에서 내는 불레찐을 비롯한 소책자들을 신속정확히 인쇄해냈으며 그 배포를 비롯한 실무처리들을 아주 깨끗이 하였다.

출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것을 투자하고있는 비슈와나스는 그의 일솜씨가 맘에 들었다.

그 처녀는 또한 짬만 있으면 글을 읽었다. 사람들은 비슈와나스가 없을 때 이 사무실에 와도 그로부터 많은 자료를 얻고 또 주체사상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가군 하였다.

비슈와나스는 매일 하루일을 총화했고 다음날에 해야 할 과업을 주었다.

혹 어떤 날에는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그 처녀는 살짝 시계를 보면서도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다 새겨듣고 조용히 자리를 뜨군 하였다. 퍽 후에야 비슈와나스는 그가 시간이 늦으면 예약한 뻐스를 놓쳐 퇴근길이 불편해진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집과 사무실사이를 오가는 자그마한 소형뻐스에 한달분의 값을 미리 지불하고 출퇴근을 하고있었던것이다.

말없이 아주 책임적인 씨마 꾸마리가 비슈와나스는 만족하였다.

어디에서 이런 《보물》이 우리에게 왔나?!

그의 콤퓨터탁우에는 작은 꽃병이 놓여있었다. 그 꽃병에 꽂혀있는 노란 꽃잎이 달린 몇송이의 금잔화가 풍기는 독특한 향기에 그의 미가 다 실려오는듯싶었다.

비슈와나스는 이 처녀가 한없이 귀했다. 주체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벗이였고 전우였다.

점점 판이 커가면서 일손이 딸리기 시작하였다.

비슈와나스는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매달에 2회씩 진행하는 연구토론회외에 지역의 여러 나라 소조들의 실태도 장악하고 그 운영도 돌봐야 했다. 그리고 원고집필과 청탁, 후열, 편집 등…

아무리 시간을 쪼개여도 절대적으로 시간이 모자랐다. 많은 일을 실속있게 하자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하는것이다.

《주체사무실》에 학자가 한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를 인입해야 할것인가?

이때 에쓰. 피. 파타크박사가 냄새라도 맡은듯이 나타났다. 그는 델리종합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금방 퇴직한 상태였다. 마침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더 생각할새없이 그를 붙잡았다. 1980년대초부터 주체사상을 신봉해왔으며 조선에도 여러번 다녀온 그

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이 있었던것이다.

파타크박사는 쾌히 응하였을뿐아니라 매우 좋아하였다.

그가 《주체사무실》에 《입직》한 다음부터 방에는 웃음이 넘쳐났다. 키가 작고 체소한 박사는 학식도 많고 유모아도 대단히 많은 사람이였던것이다. 파타크가 일으키는 그 웃음은 일을 더 빨리, 더 즐겁게 떠미는 따뜻한 바람이였다.

그때부터 파타크박사가 《주체의 시대》를 맡아 다양한 양상으로 편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외에 《주체사무실》에는 비슈와나스의 곁에 늘 묻어다니는 또 한명의 꼬마주인이 있었으니 그는 무케시의 맏아들 아쉬쉬였다.

이제 금방 10살을 넘긴 아쉬쉬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노상 할아버지의 그림자마냥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심부름도 곧잘 하였고 무슨 책이든 손에 들면 골똘히 생각하며 읽을줄도 알았다.

가장 사랑스런 손자였다.

그 많은 손자들중에서 아쉬쉬의 이름만을 비슈와나스가 직접 지어주었다. 그래서인지 아쉬쉬는 자기를 아쉬쉬 비슈와나스라고 즐겨부르고 쓰고있었다.

아쉬쉬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와 한 침대에서 자고있었다. 비슈와나스도 이제는 일흔을 넘겼으니 손자가 더없이 고왔고 주체의 한길을 대를 이어 걸어갈 가문의 후손을 은근히 생각하고있는것이였다.

아쉬쉬는 할아버지의 슬하에서 많은것을 배웠으며 많은것을 보아왔고 들어왔다. 이 어린 꼬마는 《주체사무실》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그들과 친숙해졌고 다는 리해할수 없어도 그들이 하는 낱말들에 점점 익숙해갔다.

아쉬쉬는 방학때마다 할아버지를 따라 판도리비비마을에 가보는것을 즐겨하였다.

이 어린 소년의 눈에 비끼는 농촌마을은 신기한것이였다. 자기의 가문에 이러한 땅이 있다는것도 신기하였고 도시와는 너무나도 판이한 현실이 있다는것도 놀라왔다.

비슈와나스는 이 어린 손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알기쉽게 깨우쳐주며 주체의 원리를 심어줄것인가를 모색하며 그를 데

리고 다니였다.

이렇듯 지역연구소는 그 집행부가 결원된 기간 비슈와나스에 의해 사업이 침체되지 않고 계속 심화되였다. 비슈와나스가 애초에 지역연구소를 창설한 사람이고 뒤에서 그 사업을 떠밀어온 인물이라는것은 신봉자들모두가 이미 알고있었다. 하기에 그의 조직사업에는 모두가 응해나섰던것이다. 사실 그는 시작부터 지역연구소의 비공식적인 주인이였다.

이때부터 그는 오늘까지 해마다 뉴델리에서 전국토론회를 4번이상 의무적으로 진행해오고있다. 2월 16일, 4월 15일, 9월 9일, 10월 10일… 그리고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지역모임을 조직하였다.

이 기간에 뉴델리에서 현세계에서의 자주와 평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1998.4)가 진행되고 까뜨만두에서 사회의 자주적발전과 자력갱생에 관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토론회(1999.10)가 성대히 진행된것만 보아도 그가 지역과 전세계에서의 주체사상연구보급을 위해 얼마나 분발하여 나섰는가를 알수 있는것이다.

스스로 맡아안은 의무를 수행했다는 기쁨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였다. 아름다운 생활은 역시 창조하기에 달렸다.

1998년 8월 31일.

세계를 놀래우는 사변이 일어났다. 어려운 경제난을 겪는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100프로 자체의 기술과 지혜로 개발한 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을 단 한번의 발사로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던것이다.

1990년대 중엽 조선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였다. 다른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 련이은 자연재해, 그 모든것을 극복하면서 조선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갔다.

조선은 결코 동냥바가지를 들고다니지 않았다. 공화국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존엄을 지켰을뿐아니라 그 위용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공화국이 첫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쏴올린 경이적인 사변은 온 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되였다.

한세기의 저물녘에 평화의 광명은 비쳐오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더욱 분발하여 지역의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지도하고 장악하면서 지역연구소 성원들을 새롭게 추천하는 문제를 내내 생각해왔다.

많은 일을 혼자서는 못하는 법이다.

비슈와나스는 지역연구소일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뒤에서 소리없이 계속 떠밀어주고싶었다.

그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신봉자들이 망라되여있는 인디아주체사상연구학회사업을 계속 중시하고있었다. 전국의 중요주와 도시들에 다 조직되여있는 27개의 연구소조는 모두 이 학회를 축으로 하여 자기 활동을 전개해나가고있었다. 그 소조들에 망라되여있는 신봉자의 수는 무려 수천만명에 달하였다. 그 수는 사실 수십개 나라의 신봉자들을 합친것보다도 더 많은것이였다. 그만큼 인디아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몫은 큰것이였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비슈와나스였다. 그는 앞으로 빠른 시일에 인디아의 32개의 모든 주, 직할시들에 연구소조를 다 내올 계획이였다. 그는 시종일관 더 많은 신봉자들을 육성하는것으로써 지역연구소와 국제연구소를 떠받들어주고싶었다.

1999년 10월 네팔에서 있은 지역연구소 리사회 제8차회의에서는 리사회의 일부 성원들을 소환하고 새롭게 보선하였다.

리사회는 인디아, 방글라데슈,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수리아, 타이, 일본 등 아시아나라들의 주체사상연구조직 및 신봉자들을 대표하는 14명의 리사들로 구성되였으며 이밖에 1명의 명예리사장(전 리사장 무케르지)과 1명의 명예리사(전 서기장 고빈드의 미망인 프라밀라 스리바스타바)가 포함되였다.

이 회의에서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이며 최고재판소소속 변호사인 가리브 네와즈가 집행리사장으로 선출되였다.

리사들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비슈와나스가 지역연구소 서기장의 직책을 공식적으로 맡게 되였다.

그후 아시아지역 연구소리사회는 성원들을 소환보선하면서 중단없이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오늘도 비슈와나스는 이 《주체사무실》에서 세계의 주체사상연

구보급사업을 설계하고 포치하고 종합하고있다. 매일같이 그는 제 시간에 출근하고 뒤늦게 퇴근하고있다.

그에게는 하루가 짧았다. 많은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항시 시간이 모자랐다.

금요일 저녁이면 모두가 주말휴식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는 토요일에도 출근한다. 싼또쉬 꾸마리와 자식들이 볼부을 때가 있지만 그들도 막을수 없는 그의 걸음을 보장해야 했다.

《왜 쉬는 날에도 사무실에 나가나요?》 이렇게 묻는 손녀에게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무의미하게 앉아서 죽고싶지는 않거든.》

비슈와나스의 락은 오직 죽기 전까지 일에 매달리는것뿐이였다.

끝없는 창조와 정열을 바쳐 주체의 한길을 가는것, 그것이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진정 그가 사랑하는 모습이였다.

심지어 그는 인디아의 기본민속명절의 하나인 홀리명절(물감명절)에도 《주체사무실》에 나와 문을 꾹 닫고 책을 읽고있다.

이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들과 한데 어울려 서로서로 여러가지 색갈의 물감을 옷에, 얼굴에 뿌려주며 웃고 떠든다. 이날은 대체로 해마다 2월말경에 닿았다. 이날에는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교도에 관계없이 서로 물감을 뿌려주는데 모두가 좋아들하였다.

하지만 비슈와나스는 어려서부터 이 명절의 놀음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얼굴과 머리칼에 물감이 들고 또 그것을 씻고 하는 시간이면 그는 일을 더하고싶었다. 그는 이런 사람이였다. 그것은 그의 가문이 대대로 힌두교를 숭상했지만 실지로 사원에는 다니지 않았고 그 시간에 보다 현실적인 일들을 해온것과 다름이 없었다.

씨마 꾸마리 역시 오늘도 변함없이 그자리에 앉아있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어제날의 그 처녀가 오늘은 귀여운 아들을 가진 30대의 세련된 어머니로 변모된것이다. 가정적인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고도 그는 웃으며 하루도 건늠없이 《주체사무실》에 나오고있다. 저녁에 돌아가서는 어린 아들에게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립정신을 키워주고있다.

세계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은 뉴델리에서 자주 그를 만나고있다.

모든 토론회참가자들의 숙식, 체류, 연회 등 온갖 실무처리들을 그가 맡아하고있기때문이다.

연회가 끝난 다음에 뒤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드는 곳이 있는데 그 장소에서도 그는 알콜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도 싼또쉬 꾸마리처럼 남새음식을 좋아하였다.

토론회들의 기록도 맡아하고있는 그는 력사의 증견자, 보관자로서 지역연구소에 없어서는 안될 인물로 되였다.

파타크박사 역시 오늘도 백발을 날리며 《주체사무실》에서 변함없이 《주체의 시대》를 빛내가고있다. 그는 이따금씩 대학에서 초청하면 가서 상담을 하는것외에 하루도 건늠없이 줄곧 여기서 모든 시간을 보내고있다.

너무도 성실한 그의 인간미에 끌리워 비슈와나스가 드문히 한상 차리면 그는 《이 많은것을 어떻게 다 처리하라는가?》 하면서 새처럼 조금 먹었다.

파타크박사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였다. 그가 편집하는 잡지 《주체의 시대》는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슈, 스리랑카, 타이, 일본, 영국, 프랑스, 로씨야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의 나라들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주요도시들에 다 날아가고있다.

오늘 파타크박사는 인디아 **김정일**로작연구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나는 아직 한번도 그와는 마주앉지 못했지만 분기마다 보내오는 《주체의 시대》를 볼 때면 왜서인지 그의 롱담기어린 얼굴이 슬며시 떠올라 마음이 저절로 훙그러워진다.

비슈와나스의 주위에는 이렇듯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들을 자유와 평화를 위한 성스러운 길에 나선 사람으로 자부하면서 어깨겯고 씩씩하게 한길을 걸어갔다.

세월과 더불어 주체의 대로를 부단히 넓혀가는 열정의 인간 비슈와나스!

그의 마음속에 날고나는 자유와 평화의 아름다운 새는 날개를 더 한껏 펼치고 세기의 언덕을 넘어 밝아오는 새 천년기의 가없는 하늘가로 그냥 날아오르고있었다.

끝없는 창공을 향하여
찬란한 광명을 향하여
자유의 공기를 향하여
태양의 빛을 받아
자유의 깃 펼친 새야
날으라 우주의 한끝까지